



기업탐방-(주)신아E&S 김산 대표 ▶7면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이 일상이 된 시대다. 도시 열섬현상 심화와 냉방 에너지 소비 증가는 탄소배출 확대와 전력 수급 부담으로 이어지며 전 세계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학교와 공공청사, 공동주택, 산업시설 등...



포토인터뷰-피겨 간판 신지아 ▶10면
무더운 여름, 다음 시즌을 위해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피겨 스케이팅 국가대표 신지아 선수를 태릉실내빙상장에서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훈련하는 모습을 취재했다. 신지아 선수,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근황 간단히...



인터뷰-부산광역시의회 강무길 의장 ▶16면
제10대 부산광역시의회가 부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산은 해양수도 완성과 가덕도신공항,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동남권 광역경제권 구축...

김석준 교육감, 해직교사 특별채용 항소심 무죄

항소심 재판부 “공개채용 절차에 부합... 절차상 문제까지 형사책임 묻기 어려워”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2018년 해직교사 특별채용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3부(부장판사 김도균)는 8월 20일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학교' 사건으로 해직된 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으로 사실상 내정한 뒤, 교원인사 담당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특별채용의 필요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해직교사들의 복직 가능 기한이 촉박해 최소한의 복직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해직교사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질서를 훼손



손하거나 복직해서는 안 될 인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장기간 해직으로 인한 생계 문제와 교사로서의 명예 회복 필요성도 고려할 사정이라고 봤다. 또한, 전교조 측에서 지속적으로 복직 요구가 제기돼 온 상황에서 교육감으로서 관련 민원과 요구에 일정 부분 대응할 필요성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별채용 절차 역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별채용 과정에서 공개채용 절차가 마련됐고, 지원 대상이 해직교사 4명으로만 한정된 것

도 아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정원에 비해 교원이 부족해 추가 교원 확보가 필요했던 상황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특별채용은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요구하는 공개채용 절차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2014년부터 전교조 측의 민원이 있었음에도 실무자의 의견을 존중했고 결재를 강요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일부 경미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형사책임까지 묻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밝혔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수사와 공소 제기 과정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특별채용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음에도 장기간에 걸친 감사와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왜곡되거나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또, 수사권과 공소권이 과도하게 행사된 부분을 거론하면서 사건 처리 과정에 외부적 개입이나 압력이 있었다는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김 교육감은 교육감직 상실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법적 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 다만, 이번 무죄 판결은 항소심 판단으로,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최종적인 사법 판단은 계속될 수 있다. 향후 검찰의 상고여부와 대법원 판단이 남은 변수로 주목된다.

황유기 기자 hog@

전남광주교육청, AI시대 발맞춘 대입·공교육 혁신 주도

국가교육발전위 공동 토론회서 대입 제도 및 사·논술형 평가 방향 논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20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국가교육위원회와 공동으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 토론회’를 개최하고, AI 대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미래 대학 입시 제도 개편과 공교육 혁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남과 광주 교육이 40년 만에 통합을 이룬 이후, 지역의 목소리를 국가 교육 정책에 반영하여 미래 교육의 설계도를 직접 그려나가는 공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해 교원, 학생, 학부모 등 교육 가족이 대거 참석해 미래 사회를 대비한 대입 제도 방향과 AI 기반 사·논술형 평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김대중 교육감은 “정답만 고르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 단언하며, 단순 암기 위주의 획일적인 객관식 평가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생각하는 힘’과 ‘비판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대입 제도로



의 근본적인 혁신을 촉구했다. 특히 교육의 패러다임을 ‘성적’에서 ‘성장’으로, 교실 수업을 ‘티칭(Teaching)’에서 ‘코칭(Coaching)’으로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은 2027년부터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사·논술형 평가를 본격 추진한다. 동시에, AI 에듀테크 채점 시스템을 도입해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특히,‘전남광주

교육과정개발평가원(가칭)’을 개설해 전문적인 공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교사들의 행정 부담을 해소하는 등 선제적인 체질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김 교육감은 “전남광주가 주도하는 이 담대한 변화는 대한민국 교육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인 ‘K-교육의 표준’이 될 것”이라며, “‘공생·책임·성장’의 가치를 실현하여 전남광주를 세계적인 교육특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상식 기자 2580news@daum.net

서울 직업계고 학생 선수 99명,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

35개 직종 참가 전공 역량과 실무 능력 겨뤄... 인천 6개 경기장서 28일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24일부터 인천광역시 일대에서 열리고 있는 ‘2026 인천광역시 제61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서울 직업계고 학생 선수 99명이 35개 직종에 출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서울 지역 직업

계고 20교가 참가한다. 학생 선수들은 게임개발과 자동차페인팅 등 35개 직종에서 기량을 겨룬다.

학생들은 그동안 전공심화동아리 활동과 종목별 기능훈련을 통해 실무 역량을 높여 왔다. 문제해결 능력과 전공 분야의 전문성도

꾸준히 강화했다.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인의 기능 수준 향상과 우수 기능인 발굴·육성을 위해 매년 열리는 대회다. 올해 대회는 인천광역시 송도컨벤시아 등 6개 경기장에서 28일까지 진행된다.

서울 학생 선수들은 전기와 기계, 자동차 분야에 출전한다. 게임개발과 애니메이션, 클라우드컴퓨팅 등 디지털·신기술 분야에서도 실력을 겨룬다. 학생들은 대회를 통해 전공 분야의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선보일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기능경기대회 참가를 학생들의 전공 역량을 점검하는 교육 과정으로 보고 있다. 숙련기술인으로 성장하는 기회로도 평가하고 있다. 김병선 기자 kbs@

2029학년도 수능 11월 16일 시행

교육부, 현 고1 대상... 성적은 2028년 12월 8일 통지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8일 202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시행일과 성적 통지일, 시험영역 등을 발표했다.

현재 고교 1학년 학생들이 응시할 2029학년도 수능은 2028년 11월 16일에 시행된다. 성적은 2028년 12월 8일에 통지된다.

2029학년도 수능은 국어·수학·

탐구 영역 선택과목 폐지 등 2028학년도부터 바뀐 수능 체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은 선택과목 없이 동일한 기준과 내용으로 평가한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만 9개 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해 응시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출제 원칙 등 수능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202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을 2028년 3월 공고할 예정이다.

시험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이다. 수험생은 한국사 영역을 필수로 응시하고 나머지 영역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사회·과학탐구를 선택하면 사회·과학탐구에 모두 응시해야 한다. 출제형식은 객관식 5지선다형이다. 수학 영역은 문항 수의 30%를 단답형으로 낸다.

김병선 기자 kbs@

"학생을 위한 공간, 교육을 위한 가치를 만드는 선택"

월드퍼니처가 함께합니다

ONLY WORLD BENEFIT

BENEFIT 01	BENEFIT 02	BENEFIT 03
연계고용부담금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감면받는 제도	총액 계약 조달청과 수의사입하하여 계약을 체결 하는 제도	수의 계약 금액에 상관없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제도

주식회사 월드퍼니처 | 1588-3886 | 부산시 강서구 녹산화전로 23

WORLD FURNITURE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한국인권교육원 ‘클릭하지 못하는 시민’ 인권포럼

한승훈 한국인권교육원장 “AI·디지털 시대, 소외되는 인권 사각지대에 주목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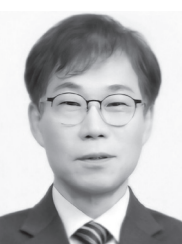
사단법인 한국인권교육원(이사장 위인백, 원장 한승훈)은 8월 26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광주 5·18민주화운동교육관 대강당에서 ‘클릭하지 못하는 시민-AI 시대, 노인의 디지털 인권선언’을 주제로 인권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행정·의료·금융·교통·복지 등 시민 생활 전반이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노년층이 겪는 정보 접근의 어려움과 사회적 배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키오스크 주문, 모바일 본인인증, 비대면 행정절차, 병원 예약, 온라인 금융거래와 복지 신청은 시민에게 큰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되고 있다.

한국인권교육원은 이러한 문제가 개인의 디지털 활용 능력에 국한되지 않으며, 정보접근권, 평등권, 개인정보 보호권, 자기결정권, 공공서비스 이용권, 대면서비스를 선택할 권리와 연결된 시민권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포럼은 전문가가 쟁점을 진단하는 제1세션과 시민사회가 생활 현장의 경험과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제2세션으로 구성된다.



제1세션 ‘전문가가 진단하다’의 주제는 ‘클릭하지 못하는 시민, 어디에서 권리가 멈추는가’이다.

한승훈 한국인권교육원 원장이 진행하며, 김용섭 조선대학교 교수가 ‘AI 시대, 노인의 디지털 인권과 시민권’을 주제로 제1발제를 맡는다. 김춘식 동신대학교 교수는 ‘노인의 디지털 접근권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와 지방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제2발제를 진행한다.

지정토론에는 박희서 조선대학교 명예교수, 오세운 前호남대학교 교수, 홍기대 前광주교육대학교 교수, 김란 前무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참여한다.

토론자들은 노인의 정보접근권, 행정·의료·금융·복지 분야의 대면선택권, 키오스크와 모바일 본인인증의 접근성, 개인정보 보호, AI 돌봄서비스와 자기결정권, 지방정부의 역할 등을 논의한다.

제2세션 ‘시민이 말한다’는 ‘우리의 클릭이 멈췄을 때, 누가 시민의 권리를 지켜야 하는가’를 주제로 열린다. 이진근 한국인권교육원 연구소장이 진행하고, 노년·노인복지·청소년·청년·교육·인권·



복지·시민사회 분야 10개 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자가 시민참여패널로 참여한다.

시민참여패널들은 노인이 디지털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겪은 실제 사례를 공유하고, 병원·은행·행정기관·복지기관이 유지해야 할 대면서비스, 모바일 인증과 대리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및 책임 문제,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우선하여 개선해야 할 제도

와 서비스 등을 제안한다. 일반 참가자도 자유발언과 의견카드를 통해 자신의 경험과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현장에서 수렴된 시민 의견은 ‘광주 디지털 노인인권 선언’에 반영되며, 포럼 말미에 선언문의 핵심 내용을 발

표할 예정이다.

문화공연도 함께 마련된다. 식전 행사에는 김주희 판소리 명창과 고수 조성환이 출연한다. 제1세션과 제2세션 사이에는 김선옥 첼리스트, 정미영 바이올리니스트, 김유경 비올리스트로 구성된 ‘Sing-along 현악 3중주’가 ‘마법의 성’, ‘오빠 생각’, ‘섬집아가기’를 연주한다.

위인백 한국인권교육원 이사장은 “디지털 전환은 시민의 삶을 편리하게 해야 하며, 누구도 필수적인 서비스와 권리의 바깥으로 밀려나서는 안 된다”며, “이번 포럼이 노인의 디지털 접근권과 대면선택권을 지역사회 공동의 인권 기준으로 세우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승훈 한국인권교육원 원장은 “전문가의 진단과 시민의 생활 경험을 하나의 공론장에 연결하여 노인의 디지털 배제를 개인의 책임 문제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근 한국인권교육원 연구소장은 “시민이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지역사회가 실천할 원 칙을 직접 제안하는 것이 이번 포럼의 핵심”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선언문과 향후 인권교육·정책 제안으로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안용섭 기자 ays@

社 說

학령인구 감소가 교육재정 축소의 핑계 돼선 안 돼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산식 개편 및 재정 축소 움직임은 즉시 제고되어야 한다.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교육 예산부터 깎겠다는 식의 단편적 접근은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뿌리를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교육 현장은 단순히 ‘학생 수’라는 숫자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학생 수가 줄더라도 인건비, 학교 시설 유지·보수비, 냉난방비 등 고정 운영비는 그대로 유지된다. 교사 양여비는 그대로 유지된다. 나이가 디지털 AI 교육 전환, 돌봄 및 방과 후 학교 확대, 특수·다문화 교육 등 맞춤형 교육 수요는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 인구 감소 시대일수록 한 사람의 인재를 제대로 키워내기 위한 1인당 교육 투자 비용은 늘 어날 수밖에 없다. 재정을 감축할 경우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가속화되어 지역 교육 격차와

지방 소멸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다.

재정 당국과 개편 찬성론자들의 지적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20.79%)을 무조건 교육청에 배분하는 현재의 연동 방식은 국가 전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이다.

시·도교육청에 과도한 기금 적립금이 쌓이는 현상을 방지하고, 대학·평생교육이나 복지 등 재정 수요가 더 시급한 분야로 예산을 유연하게 재배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그러나 세수 변동에 따른 일시적 여유 재정을 이유로 교부금 제도 자체를 대폭 축소하려는 것은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격이다. 교육 예산의 특성상 단기적인 경기 변동이나 일시적인 학령인구 그래프에 따

라 갈팡질팡해서는 장기적인 교육 정책을 펼칠 수 없다.

재정 효율화가 필요하다면 초과 재원을 ‘미래교육기금’ 등으로 적립하여 기후변화 대응, 노후 학교 개선, 미래형 교육 인프라 구축 등에 안정적으로 쓰이도록 내실을 다지는 방향이어야지, 본래 목적인 초·중등 교육재정의 판을 흔드는 방식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

교육재정은 소비성 지출이 아니라 국가의 배려대계를 위한 미래 투자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지름이아말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질 높은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정부와 국회는 단순히 예산을 깎는 개편이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의 질적 제고와 지방교육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지혜로운 재정 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

“미래 여는 더 큰 대한민국 만드는 전남광주교육”

K-교육특별시 준비위, 김대중 교육감에 현장·시민 의견 반영 정책제안서 전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감 김대중) 7월 27일 출범과 함께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대전환을 이끌어온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위원장 김경범)’가 49일간의 공식 활동으로 제시된 핵심 공약과 시·도민의 목소리를 담은 최종 정책제안서를 김대중 교육감에게 전달했다.

이번 정책제안서는 ▲전국 최초로·눈송형 평가 도입 및 AI 평가지원 시스템 구축 ▲교육청 조직 개편 및 권역별 교육지원 체계 구축 ▲(가칭)교육과정개발평가원 설립을 통한 평가·교원 보호 공적 책임 강화 ▲전남광주형 이공계 및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교육 지산지소 체계) 등 전남광주 교육을 넘어 대한민국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파격적이고 실행력 높은 혁신 과제들을 핵심 리드로 내걸었다.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7월 28일 오전 10시, 전남청사(남악) 2층 대회의실에서 ‘우리가 만드는 대한민국 교육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 정책제안서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해 부교육감, 실·국·과장 등 본청 간부들과 인사위원, 실무위원, 지원본부 등 준비위원회 관계자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공개된 정책제안서에는 최종 77개의 현안 과제를 담았다. 선정된 과제는 정책 56개, 장기적 발

전과제 21개이다. 김경범 준비위원장은 이날 전달

식에서 “출범 49일째가 되는 오늘, 심도 있는 논의와 시민 제안을 종합하여 교육감님의 공약과 전남광주교육의 시대적 과제를 담은 최종 정책제안서를 완성하게 되었다”면서, “오늘 보고드리는 이 제안서가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세울 든든한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40년 만의 전남광주교육행정 통합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앞두고 빠르게 안정적 국면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정교한 실행 기틀을 다져 주신 김경범 위원장과 준비위원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 덕분”이라며 깊은 감사를 표했다.

장상식 기자 2580news@daum.net

“정당한 교육활동 법으로 보호해야”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 1인 시위 돌입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총은 8월 18일 강주호 회장이 경기 과천 법무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오는 9월 4일까지 국회의사당 정문과 법무부, 보건복지부 앞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함께 교원 3단체 공동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현재 전국 유·초·중·고 교육현장에서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가 하루 평균 2건가량 발생하고 있다며, 정당한 생활지도까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이 교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업 중 교실을 돌아다니는 학생에게 자리에 앉도록 지도하거나 다른 학생을 폭행하는 학생의 행동을 제지하는 등 학생 안

전과 수업권 보호를 위한 생활지도마저 ‘정서적 학대’로 신고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교총에 따르면 교육부 통계상 2023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접수된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1,870건 가운데 72.3%인 1,352건이 교육청에서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됐다. 또한 수사·조사가 종결된 사건의 90.4%는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결과적으로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나더라도 신고가 접수되는 순간부터 교원은 경찰과 검찰의 조사·수사를 장기간 받아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교사들이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겪고 교육활동에 대한 의욕까지 잃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으로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꼽았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훈육이



아동학대로 해석될 여지가 크고, 교육청과 검찰이 정당한 교육활동 또는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더라도 수사절차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교원지위법상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교원 개인이 법적·경제적 부담을 상당 부분 감당해야 하는 현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잘못한 학생을 타이르고 친구를 폭행하는 학생을 제지하는 정당한 생활지도마저 정서학대로 몰려 조사와 수사를 받아야 하는 교실에서는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은 교원 3단체 공동 릴레이 1인 시위를 통해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함께 보호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 나갈 방침이다. 황요규 기자 hog@



특허청장이 추천하는 우선구매대상 “우수발명품”

에듀테크 비즈니스모델 공모전 “최우수상”



XingQ Table

조달청 G2B 식별번호
24823144 / 24860039

창의사고력 향상 멀티미디어 학습 시스템

- 창의사고력 향상 콘텐츠 48종
- 창의사고력 향상 테스트
- 안전교육
- 사회성 발달
- 메타인지력, 문제해결력 향상



[설치 적용 분야]

- 초등 돌봄 교실, 초등 방과후 교실 멀티미디어 놀이 학습
- 키즈 카페, 체험관, 교육관, 과학관, 공공기관 멀티미디어 놀이 학습



“한국 경제력, 일본과 대등… 생활수준은 우세”

광복 81주년 설문조사… 13개 산업 중 9개 한국 우위, 기초과학·원천기술만 ‘일본 우위’

엘리트(대표 한환희)은 온라인 설문 플랫폼 나우앤서베이는 광복 81주년을 맞아 전국 만 20세 이상 패널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인은 일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설문조사 결과를 8월 1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8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조사 결과, 한국인은 한국과 일본의 경제력을 사실상 대등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가 경제력에 대해 ‘한국이 높다’는 응답은 33.5%, ‘일본이 높다’는 응답은 30.0%로 3.5%포인트 차이의 박빙이었으며, ‘비슷하다’는 응답이 36.5%로 가장 많았다. 일반 국민의 생활수준에서는 격차가 더 벌어져 ‘한국이 높다’(37.2%)가 ‘일본이 높다’(23.3%)를 13.9%포인트 앞섰다.

특히 10년 후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1.9%가 ‘한국이 일본을 앞설 것’이라고 답해 ‘일본이 앞설 것’(14.0%)이라는 응답의 3.7배에 달했다. 국가 경제력(3.5%포인트 차이)보다 국민 생활수준(13.9%포인트 차이)에서, 그리고 현재보다 10년 후 전망에서 한국 우위 인식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 체감 격차와 미래 전망으로 갈수록 자신감이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13개 산업 분야별 경쟁력 평가에서는 한국의 자신감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5점 척도(1점 일본 매우 우위~5점 한국 매우 우위)로 측정한 결과 반도체가 4.25점으로 가장 높았고, 문화콘텐츠(4.07점)와 조선·해양(4.01점)이 뒤를 이어 이들 3개 산업은 ‘한국 매우 우위’로 분류됐다.

AI·소프트웨어(3.73점), 이차전지(3.72점), 전자제품·가전(3.71점), 방위산업(3.69점), 바이오·헬스케어(3.26점), 자동차·모빌리티(3.24점)도 ‘한국 우위’로 평가돼



13개 산업 중 9개가 한국 우위 이상 판정을 받았다.

반면 기초과학·원천기술은 2.69점으로 유일하게 ‘일본 우위’로 분류됐으며, 첨단 소재·부품·장비(3.17점), 정밀기계·로봇(3.17점), 항공우주(3.09점) 등 원천기술 기반 산업은 사실상 양국이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완성품과 콘텐츠 분야에서는 한국의 경쟁력에 강한 자신감을 보인 반면, 기초과학·원천기술에서는 일본의 우위를 인정하는 인식이 나타났다.

일본을 경쟁 상대로 인식하면서도 협력의 필요성에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한국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한일 경제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응답자의 70.0%가 찬성했으며, 반대는 4.2%에 그쳤다.

향후 10년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인을 묻는 질문에는 저출산·고령화가 42.9%로 가장 많은 응답을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정치·사회 갈등(26.9%), 물가 상승과 가계 부담(26.8%), 미·중 갈등 등 국제정세 변화(24.7%), AI

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24.0%), 청년 일자리 부족(20.8%),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19.3%), 글로벌 경기침체(14.6%)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권을 차지한 저출산·고령화, 정치·사회 갈등, 물가·가계 부담이 모두 한국 사회 내부의 구조적 문제인 반면 미·중 갈등이나 글로벌 경기침체 같은 대외 변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에 머물러, 국민이 한국 경제의 위협을 외부보다 내부에서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서도 저출산 문제 해결이 35.2%로 1위를 차지했으며, AI·첨단기술 투자 확대(33.6%)와 과학기술 R&D 확대(32.0%)가 뒤를 이었다. 이어 규제 혁신 및 기업환경 개선(25.0%), 교육 개혁 및 인재 양성(23.0%), 노동시장 개혁(22.1%), 글로벌 경제협력 확대(19.0%), 창업 및 벤처 활성화(10.1%) 순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R&D 확대에 대한 요구는 앞선 산업 경쟁력 평가에서 기초과학·원천기술이 13개 산업

중 유일하게 ‘일본 우위’로 나타난 결과와 맞닿아 있어, 국민이 인식한 산업의 약점과 성장 해법에 대한 요구가 서로 맞물리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저출산·고령화는 최대 위험요인(42.9%)이자 가장 필요한 성장 조건(35.2%)으로 두 문항 모두에서 나란히 1위에 오르며,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 확인됐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이 이룬 가장 큰 성과로는 경제성장(49.4%)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한 가운데, K·콘텐츠의 세계화(31.0%)가 산업화와 수출 성장(29.7%), 민주주의 발전(27.0%)을 제치고 2위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앞으로 가장 우선해야 할 국가 전략으로는 경제성장과 산업경쟁력 강화(36.0%), 저출산·고령화 대응(34.1%), AI·첨단기술 육성(30.5%)이 상위권을 형성했으며, 양극화 완화(28.9%)와 주거 안정(27.5%) 등 민생 의제도 함께 상위권에 올랐다. 반면 한반도 평화통일(13.7%)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세대별 인식 차이도 뚜렷했다. 60대 이상은 현재 경제력에서 일본 우위(40.9%)가 한국 우위(26.8%)보다 많다고 답한 유일한 세대였으며, 광복절의 의미에 대해서도 60대 이상은 ‘역사와 교훈을 되새기는 날’(37.2%)을, 20~30대는 ‘독립을 기념하는 날’(64%대)을 상대적으로 많이 꼽았다.

위험요인 인식에서는 청년 일자리 부족을 20대(35.7%)가, 저출산·고령화를 60대 이상(61.8%)이 더 많이 선택해 세대별 처지가 그대로 반영됐다.

대한민국 광복 81주년을 맞아 올해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일본을 더 이상 추격 대상이 아닌 대등한 경쟁자로 인식하면서도, 기초과학·원천기술의 격차와 저출산이라는 내부 과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연 기자 lyy@

전미경의 클래식 스토리

‘일장춘몽’이기에 더 아름다울 수밖에…

“‘일장춘몽’이란 허무의 선언이 아니라 순간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받아들이라는 조용한 권유일지도 모른다”

흐린 날이면 마음은 이상하게 더 더 멀리 간다. 창밖의 빛이 희미할수록, 오래된 기억과 사라진 시간은 오히려 또렷해진다. 그런 날 레스피기(Ottorino Respighi)의 “고풍스러운 춤곡과 아리아”를 듣고 있노라면, 지금 이 순간이 마치 이미 지나가버린 어떤 꿈의 잔상처럼 느껴진다.

이 작품이 나온 20세기 초에는 유럽 전반에 옛 음악을 다시 찾으려는 흐름이 강했다. 레스피기는 음악학자이기도 해서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의 악보를 연구했고, 그 자료를 현대 악기로 연주 가능하도록 다시 엮는 데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특히, 이 음악은 옛 류트 음악을 바탕으로 하되, 20세기적인 관현악 색채를 입힌 작품으로 이해하면 좋다.

작곡가 레스피기는 단순히 옛 음악을 복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잊혀진 선율에 새 생명을 부여하려고 했다. 즉, 원곡의 품위를 존중하면서도 현대의 청중이 공감할 수 있는 울림으로 재창조한 것이다. 그래서 ‘고풍스러운 춤곡과 아리아’는 고대의 음악이라기보다는 고대의 영혼을 가진 현대 음악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 곡을 듣고 있으면 마치 과거와 현대가 대화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음악을 듣는 내내 ‘일장춘몽’이라는 단어가 머리에서 맴돌았는데 사실 ‘일장춘몽’이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허무의 상징처럼 쓰여 왔다. 한바탕 봄날의 꿈, 짧고 덧없고 잡하지 않는 것. 그러나 삶을 조금 더 길게 바라본 사람들은 알게 된다. 덧없음은 반

드시 공허를 뜻하지만은 않는다 는 것을. 오히려 사라지기 때문에 더 또렷해지는 것이 있고, 오래 가지 못하기 때문에 더 깊이 남는 정서가 있다. 꿈은 깨는 순간 사라지지만, 이상하게도 꿈의 윤곽은 오래 남을 때가 있는 법이니까 말이다. 인간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

레스피기의 음악은 바로 이런 경계에 서 있는 것 같다. 이 음악은 지나간 시간을 불러오되, 막연한 과거가 아닌 사라진 시간을 오늘의 감각으로 다시 숨쉬게 만들어 버린다. 이 곡이 아름다운 이유는 과거를 그리워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과거가 여전히 오늘의 마음을 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연주자의 삶도 다르지 않다. 무대 위의 순간은 태어나는 순간 곧 사라진다. 활이 현을 떠나면 음은 공기 속으로 흩어지고, 남는 것은 몇 초의 울림과 그 뒤의 침묵뿐이다. 그러나 그 짧은 때문에 음악은 오히려 더 진실해진다. 붙들 수 없기에 더 집중하게 되고, 영원하지 않기에 더 절실해진다. 음악은 사라지는 예술이지만, 바로 그 사라짐 속에서 가장 깊은 생을 얻는다.(물론 녹음된 음반은 예외로 하고.)

그래서인가... 흐린 날의 레스피기는 이상하리만큼 잘 어울린다. 선명한 빛보다 흐릿한 빛 속에서 더 잘 보이는 것들이 있다. 기억, 후회, 그리움, 그리고 뭐라 정의 내리지 못한 슬한 감정들. 이 음악은 그런 것들을 조용히 건드린다. 화려하게 말하지 않고, 대신 오래 남는 방식으로 마음에 들어온다. 지나간 시간을

다시 살아보게 하려는 것처럼 말이다.

결국 ‘일장춘몽’은 허무를 말하는 문장이 아니라, 순간의 아름다움을 끝까지 인정하는 태도 일지도 모른다. 이 음악은 그런 태도를 음악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이 음악을 듣고 있으면 삶이 짧다는 사실마저도 어쩐지 품격 있게 느껴진다.

살다 보면 선명한 햇빛 아래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흐릿한 빛 속에서 비로소 윤곽을 드러낸다. 모든 것이 또렷할 때보다 어딘가 불완전하고 답답할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더 오래 기억하기도 하니까 말이다. 결국 ‘일장춘몽’이란 허무의 선언이 아니라 순간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받아들이라는 조용한 권유일지도 모른다. 레스피기의 음악처럼 우리의 삶도 이미 지나가는 중이지만 그 안에서 울리는 감정만큼은 결코 가볍지 않다.

오늘도 하나의 선율이 끝나듯 하루가 저문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꿈의 첫 음을 준비한다. 레스피기의 ‘고풍스러운 춤곡과 아리아’는 그의 모음곡 3번 중에 있다. 그중 1번 ‘Italiana’와 3번 ‘Siciliana’를 추천해 본다.



■ 첼리스트 전미경

- ◇ 가천대 관현악과 졸업(첼로전공)
- ◇ 서울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부수석 역임
- ◇ 금천 교향악단 부수석 역임
- ◇ 의왕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원
- ◇ 강동 챔버 오케스트라 단원
- ◇ 롯데백화점 문화센터 첼로강사

월인천강지곡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적극 나서다

(주)미래엔 교과서박물관·세종특별자치시 공동 주최 ‘월인 콘퍼런스’ 성황리 개최

월인천강지곡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국제학술대회가 지난 7월 22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주)미래엔 교과서박물관과 세종특별자치시가 공동 주최하고 세종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추진위원회가 주관했으며 사회는 방송인 정재환 한글학자가 맡아 진행했다.

먼저 박병천 등재추진위원장의 개회사로 문을 열고 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특히, 김영진 ㈜미래엔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선대 대한교과서 김광수(金光洙) 사장이 민족 문화유산을 지켜야 한다는 큰 뜻으로 월인천강지곡을 인수한 이래, 그 창업 정신은 오늘까지 미래엔의 자랑스러운 사명으로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으며 그 기조에 맞춰 《월인천강지곡》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오늘 이 자리가 든든한 학문적 토대가 되리라 믿는다”라고 역설했다.

이어서 월인천강지곡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선언 서명식과 기념촬영이 진행돼 참가자들은 등재를 위한 큰 뜻을 담은 선언문에 서명했다.

김주원 한글학회 회장은 월인천강지곡의 ‘월인천강’의 출전에 대해 기초강연을 했고, 본격적인 학



술발표는 1,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는 김문희 등재추진위원회의 사회로 첫 발표자 박병천경인교육대학교 명예교수의 세종조 한글금속활자체 형성과 월인천강지곡의 서체적 조형성을 고찰했고, 일

학원 교수는 언어 존재론 관점의 보편성을, 인도 니르자 사마즈달

네루대학교 교수는 석가모니 일대기를 노래한 불교 찬가 월인천강지곡을 발표로 1부를 마무리했다.

휴식 후 이어진 2부는 김선희 등재추진위원회의 사회로 빈첸자 두르

소 베네치아대학교 교수는 서양에서의 월인천강지곡 연구동향과 구텐베르크 인쇄문화에 대해, 김슬옹 세종국어문화원장은 월인천강지곡의 국어사적 의의와 대중 확산 전략을, 정진원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연구원을 좌장으로한 종합토론에서는 월인천강지곡의 총체적 가치와 세계기록유산 등재 과제를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쳤다.

‘가람에 비치는 노래’라는 ‘월인천강지곡’은 상중하 3권으로 구성돼 있으나 현존하는 책은 상권뿐이다. 상권은 2017년 국보 제320호로 지정됐다.

세종대왕이 소헌왕후의 명복을 빌며 손수 지은 찬불가로 1443년에 창제하고 1446년에 반포한 자국의 문자로 펴낸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으로 용비어천가와 쌍벽을 이루는 귀중한 출판자료, 곧 훈민정음(한글)으로 펴낸 문헌이다.

김동래 미래엔교과서박물관장은 “오늘 하루 문헌학·인쇄사·한글사·문학·사상·음악의 여러 방면에서, 또 일본·인도·이탈리아·독일의 연구성과를 통해 이 책의 세계사적 자리가 새롭게 확인됐다. 오늘 발표 성과와 더불어 이미 발간한 ‘월인천강지곡 입체 해설서’를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일정을 마무리 한다”라는 인사를 전했다.

안용섭 기자 ays@

한원시스템

(사) 한국 실내 공기질 관리 기술협회 회원사

HW SYSTEM

◆ 환기장치 유지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저희 한원시스템은 다수의 학교와 관공서, 다중 이용시설의 환기장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걱정 끝!

전열교환기(환기장치)
필터교체로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한 공기를 선물하세요!

환기장치유지/관리 이제 전문기업에 맡기세요!

문의전화 : 1577-2036

(주)신아E&S, 폭염과 탄소중립 시대의 해법 제시

Cool Running™ 차열기술로 친환경 미래도시와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구현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이 일상이 된 시대다. 도시 열섬현상 심화와 냉방 에너지 소비 증가는 탄소배출 확대와 전력 수급 부담으로 이어지며 전 세계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학교와 공공청사, 공동주택, 산업시설 등 건축물의 온도 상승은 에너지 비용 증가와 온실가스 배출을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친환경 차열기술 전문기업 (주)신아E&S는 독자적인 'Cool Running™' 친환경 차열기술을 통해 건축물의 온도를 낮추고 에너지 절감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실현하는 미래형 친환경 솔루션을 선보이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친환경 기술혁신**
(주)신아E&S는 친환경 건축소재와 차열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기술혁신 기업이다. 단순한 도로 생산을 넘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도시 열섬현상 완화, 온실가스 감축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이어오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중심으로 차세대 차열소재와 고기능성 도로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대학과 전문 연구기관과의 산학협력을 통해 성능과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이러한 연구개발 역량은 친환경 건축 기술 분야에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 되고 있다.

■ **건축물 온도를 낮추는 'Cool Running™'**

대표 제품인 Cool Running™ 친환경 차열페인트는 태양복사열을 효과적으로 반사하는 온도 저감 신기술 특허가 적용된 친환경 수용성 차열도료이다.

일반 도로가 태양복사에너지를 흡수해 건축물에 열을 축적하는 것과 달리, Cool Running™은 태양광 가운데 열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근적외선 영역



(주)신아E&S 대표이사 김산

역의 반사율을 극대화해 지붕과 외벽으로 전달되는 열을 효과적으로 차단한다.

옥상과 외벽 등에 적용하면 건축물 표면온도와 실내온도 상승을 억제하고 냉방에너지 사용량을 줄여 전력 소비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학교는 물론 공공청사, 공동주택, 병원, 복지시설, 산업시설 등 다양한 공간에 적용 가능해 폭염 대응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 **기술력으로 인정받은 친환경 기업**

(주)신아E&S는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을 통해 다양한 공인 인증과 기술력을 확보했다.

▲온도 저감 신기술 특허 적용 ▲친환경 수용성 차열도료 개발 ▲환경표지 인증 ▲녹색기술 인증 ▲혁신제품 지정 ▲기업부설연구소 운영 ▲산학협력 연구개발 추진 ▲차열성능 및 내후성 향상 기술 확보 이 같은 기술력은 공공조달시장과 민간 건축시장에서도 높은 신뢰를 얻는 기반이 되고 있다.

■ **학교와 도시를 바꾸는 지속가능한 솔루션**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녹색건축 활성화,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Cool Running™ 차열기술은 이러한

국가 정책과도 방향을 같이한다. 학교와 공공시설의 냉방부하를 줄이고 학생들에게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에너지 절감과 탄소배출 저감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상층 교실과 체육관, 급식실, 조립식 건축물 등 여름철 열환경에 취약한 시설에 적용하면 실내 열환경 개선 효과가 크며, 방학이나 주말을 활용한 시공이 가능해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

■ **현장 실증으로 입증된 성능**

실제 학교 체육관 지붕에 Cool Running™ 차열페인트를 적용한 결과는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준다. 차열도로 시공 후 직사광선에 노출된 지붕 표면온도는 53℃에서 35℃로 약 18℃ 감소했으며, 체육관 내부 온도 역시 29.7℃에서 26.1℃로 3.6℃ 낮아졌다.

■ **냉방부하 감소는 곧바로 에너지 절감으로 이어져**

여름철(7~9월) 전력 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전기요금은 2,473만 원에서 1,846만 원으로 약 25.3% 절감됐으며, 월평균 약 210만 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기록했다.

또한 냉방에너지 사용 감소를 통해 17.2톤(tCO₂)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했으며, 직사열로 인한 건축물 열화 현상을 줄여 건물의 내구성과 수명 연장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술은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김산 (주)신아E&S 대표는 "기후위기 시대에는 친환경 기술이 기업 경쟁력을 넘어 사회적 책임이 되어야 한다"며, "Cool Running™은 단순한 차열페인트가 아니라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미래 기술"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을 통해 학교와 공공시설, 산업현장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친환경 솔루션을 확대하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도시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한 탄소중립 사회 구현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오규 기자 hog@

■ 김산

- ◇ 순천제일대학교 산업안전관리과
- ◇ (유)신아건설 대표이사
- ◇ (주)신아E&S 대표이사
- ◇ 전라남도 도지사 표창

에스덕, 과학 교사 수업 준비 부담 줄인다

과학 특화 AI 교육솔루션 'S-DUCK' 선보여

과학 교육 AI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에스덕(S-DUCK)(대표 양장엽)이 과학 교육 데이터와 AI 기술을 결합한 과학 특화 교육솔루션 '에스덕 S-DUCK'을 선보이며 과학 수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고 있다고 8월 11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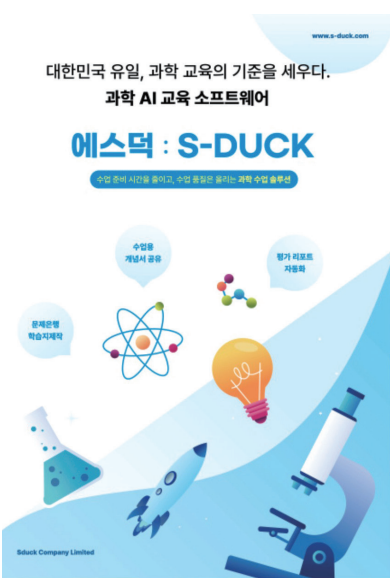
에스덕(S-DUCK)은 초·중·고 물리·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을 대상으로 문항 생성, 진단평가, 맞춤형 학습지 제작, 개념 공유, 평가 및 학습분석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국내 과학 문항 데이터를 기반으로 단원·유형·난이도에 맞는 문제를 AI가 선별·생성하고, 교사가 이를 수정해 바로 수업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생의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 개념과 연계 단원을 추적해 맞춤형 보충학습까지 설계할 수 있다.

교사가 직접 제작한 개념서와 이미지·영상·활동지, 3D 실감형 콘텐츠 등을 학생과 공유할 수 있으며, 평가 이후에는 오답·성취도·학습역량 등을 분석해 학습 리포트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존에 분리돼 있던 수업자료-문제-진단-평가-보충학습 과정을 하나의 데이터 흐름으로 연결했다.

에스덕은 '수업 준비 시간을 줄이고, 수업 품질을 올리는 과학 수업 솔루션'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과학 수업 현장에서 교사들이 겪는 ▲수업 자료 탐색에 소요되는 시간 ▲학생별 수준 차이에 따른 수업 설계의 어려움 ▲반별 맞춤 문제 선별 부담 ▲평가 이후 오답 및 성취도 관리의 어려움 등을 AI와 데이터 기반으로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에스덕은 과학 교사를 위한 핵심 기



술로 ①과학 특화 문항 생성 AI ②교육대학교와 공동 개발한 '5가지 과학 학습역량' 데이터 적용 ③진단평가 기반 '과학 연계 추적' 기술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사가 반복적으로 수행하던 자료 검색, 문제 제작, 학생별 수준 분석, 평가 후 보충학습 설계 등의 업무를 AI와 데이터로 지원하고, 교사는 실제 수업과 학생 지도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에스덕은 현재 다수의 학교 및 교육기관과 협력하며 현장 적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소규모 기관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AI 데모와 맞춤형 도입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에스덕 양장엽대표는 "S-DUCK은 단순한 문제은행이 아니라 과학 교사의 수업 준비 시간을 줄이고 학생 개별 학습을 정교하게 지원하는 과학 특화 AI 코스웨어"라며 "앞으로도 과학 교육 데이터와 AI 기술을 기반으로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제공하는 솔루션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유연 기자 lyy@

구례교육지원청, '구례의 맛과 멋' 여름 캠프 성료

꽃차·다식부터 독서인문서예, 제빵까지... 학습종합클리닉센터·독서인문학교 거점 확대

전라남도구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유동)은 지난 7월 한 달간 운영한 '2026. 구례의 맛과 멋 여름 캠프'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구례 미래교육벨리 핵심과제인 '구례 인문교육 강화'와 'K-푸드 생태계 조성'을 융합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기획됐다.

텍스트 중심의 정적인 인문 교육에서 나아가, 학생들이 오감으로 체험하고 손끝으로 직접 만들며 실천적 생활 주도성을 기르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이번 캠프는 지난 1~2월 구례영재교육원 내에 마련된 학습종합클리닉센터·독서인문학교 거점 공간을 기반으로 운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방식의 프로그램이 갖는 한계를 인지하고, 거점 공간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으로, 이번 캠프를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 교육지원청의 설명이다.

캠프는 총 3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산동면 꽃다선 공방에서 진행된 '섬지꽃 꽃차와 다식' 교실은 구례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학습코칭단이 보조강사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해 구성된 학습코칭단이 실제 수업에 힘을 보탠 것으로, 교육지원청은 앞으로 꽃차·다식 등 구례의 전통음식은 물론 예술·심리 영역까지 코칭단을 지역 강사로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구례영재교육원 '독서인문학교'에서



진행된 '독서인문서예' 교실은 학생반과 학부모반을 함께 운영한 점이 특징이다.

독서인문교육이 온전히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가정·학교·지역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도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참여 학생과 학부모들은 붓을 들고 글씨를 새기는 과정에서 생각하는 힘과 이른바 '영덩이 힘'이 길러짐을 느꼈다고 입을 모았으며, 한 편의 작품을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꼈다는 소감도 이어졌다.

같은 기간 '아이사랑카페'에서는 중1~고3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뽕뽕뽕, 구례' 제빵 교실이 요일별 원데이클래스로 운영됐다.

이는 구례의 대표 산업 중 하나인 베이커리 산업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우리밀을 가공해 빵으로 만드는 과정을 경

험하는 것이 학생들의 진로·진학 탐색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시작됐다.

김유동 구례교육장은 "가정과 학교, 지역이 한자리에 모여 구례의 맛과 멋을 손끝으로 익힌 뜻깊은 여름이었다"며, "학습종합클리닉센터·독서인문학교 거점을 중심으로 지역의 자원과 인력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아이들의 배움이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거점 공간을 점차 확대해 더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구례의 자산을 체득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례교육지원청은 거점 공간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의 성과를 확인한 만큼, 앞으로 학습종합클리닉센터·독서인문학교 거점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삼석 기자 2580news@daum.net

문의 : 010.3398.7325
010.5204.8271



주식회사 베스트링크
S2B 물품번호
2025 0131 055 1212
2025 0131 055 1061
2025 0131 055 0333

최고의 장비와 최저의 비용,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차별화된 행사를 약속 드립니다”

음향 - 이벤트 음향 - 소형 음향 - 중형 음향 - 대형 음향	조명 - 이벤트 조명 - 중소형 무대조명 - 대형조명	무대 - 이벤트 무대 - 소형 무대 - 중형 무대 - 대형 무대	영상 - 빔 프로젝터 - LED 영상 - 촬영 및 중계
--	--	--	---

인천 명신여고, 발명교육 명문 학교 입증

제39회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 금상 2명·동상 5명 수상

인천 명신여자고등학교(교장 장재진)는 지난 7월 30일 대구 EXCO에서 열린 '2026 제39회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 시상식에서 금상 2명과 동상 5명을 배출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학생 발명교육 명문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발명대회에서 1학년 이유림 학생은 '질식 경고 안전모'를 출품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금상)을 수상했고, 1학년 최서윤 학생은 '면진 및 다중 질량 구조를 활용한 카캐리어 진동 억제 장치'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금상)을 받으며 뛰어난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1학년 심자우, 김루아, 황새봄, 차민경, 하진아 학생도 각각 동상을 수상하며 명신여고 학생들의 우수한 발명 역량을 전국에 알렸다.

금상을 받은 학생들의 발명은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 우리 사회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려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이유림 학생은 맨홀과 같은 밀폐공간 작업 중 산소 부족이나 유해가스로 인해 발생하는 질식 사고가 반복되는 현실에 주목했다. 산업현장에서 끊이지 않는 인명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한 끝에 작업자의 위험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질식 경고 안전모'를 고안했다.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장비라는 공익적 가치와 실용성을 동시에 갖춘 발명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서윤 학생 역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시선에서 발명을 시작했다. 카캐리어 차량이 장거리 운행 과정에서 반복되는 노면 진동으로 적재 차량이 흔들리거나 낙하하는 사고를 접한 뒤, 구조적으로 진동을 줄여 차량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그 결과 면진 구조와 다중 질량 시스템을 적용한 진동 억제장치를 개발해 운송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했다.

두 학생 모두 일상에서 접한 사회 문제를 공학적 사고와 창의적 설계로 해결하려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학생 발명이 실생활과 산업현장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명신여고의 이번 성과는 개인의 재능을 넘어 학교의 체계적인 발명교육이 만들어낸 결실이라는 평가다.

명신여고는 특허청 지정 발명·특허 고등학교로, 과학고나 자율형사립고가 아닌 일반계 여자고등학교임에도 전국 최고 수준의 발명교육 시스템을 수년간에 구축하

며 미래 지식재산 인재 양성에 힘써 왔다.

학생들은 생활 속 불편함과 사회적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이를 과학·공학적 원리와 창의적 아이디어로 해결하는 프로젝트 중심 교육을 통해 창의융합 역량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있다. 이러한 교육은 각종 전국 규모 발명대회에서 꾸준한 성과로 이어지며 명신여고만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장재진 교장은 "발명교육은 학생들이 사회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적 사고력과 융합적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르는 교육"이라며, "명신여고 고등학교는 앞으로도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청소년 발명가이자 지식재산 인재로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수상은 학생 개개인의 뛰어난 창의성과 도전정신은 물론,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교육을 실천해 온 명신여고의 교육철학이 만들어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한계를 뛰어넘어 전국 발명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명신여고가 앞으로 어떤 미래 인재를 길러낼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안용섭 기자 ays@

인천 만성중, 더위도 이긴 정신건강 골든벨 열기

남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주관 온·오프라인 골든벨 행사 적극 참여

인천 만성중학교(교장 정성미) 3학년 학생들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골든벨' 온라인 캠페인에서 참여율 1위를 차지하며, 8월 3일 개학에 맞춰 오프라인 골든벨 행사를 성료했다고 지난 8월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천남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캠페인'의 하나로, 2026년 5월 한 달간 진행된 온라인 퀴즈 캠페인에서 학년별 참여율 1위를 기록한 학교 학년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골든벨 행사가 연계 진행됐다.

오프라인 골든벨 행사는 8월 3일 빠른 개학 이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만성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 속에 치러졌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2명의 학생이 끝까지 남아 최후의 1인을 가



리기 어려울 정도로 치열한 접전을 펼쳐 행사장의 열기를 더했다. 오프라인 골든벨은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관련 사전 예상문제를 바탕으로, 제한된 시간 내 문제를 풀어 최후의 1인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후의 1인에게는 VIPS 10만 원 금액권이 수여됐으며, 해당 학교 전체에는 맥도날드 1955버거 세트가 단체 상품으로 제공돼 학생들

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정성미 교장은 "학생들이 온라인 캠페인부터 오프라인 행사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청소년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스스로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라며, "이번 경험이 우리 학생들이 자신과 친구의 정신건강에 관심을 갖고 경각심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안용섭 기자 ays@

인천교육청, 미래 항공우주 인재 육성

美 NASA·보잉서 미래 항공우주산업 발전 방향 익히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지난 7월 6일부터 16일까지 고등학교 2학년 학생과 지도교사 등 13명을 대상으로 미국 올랜도, 시애틀, 로스앤젤레스(LA)에서 '2026 인천세계로배움학교 제3기 항공우주아카데미'를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항공

우주 연구 기관을 방문해 우주 탐사와 항공우주 기술의 미래를 배우고 글로벌 항공우주 인재로서의 꿈과 비전을 구체화하도록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미국을 대표하는 항공우주·첨단기술 기관인 ▲NASA 케네디 우주센터 ▲NASA 제트추진연구소(JPL) ▲보잉 에버렛 공

장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캘리포니아공과대학교(Caltech) ▲UCLA 방문 등으로 구성됐다.

학생들은 NASA 제트추진연구소(JPL)를 방문해 화성 탐사와 심우주 탐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연구원들과 만나 실제 우주 탐사 임무와 미래 우주개발 계획을 살펴봤다.

또한, 보잉 에버렛 공장에서 엔지니어 및 과학자와의 멘토링을 통해 첨단 항공기 설계와 제작 과정, 미래 항공우주산업의 발전 방향을 배웠으며, UCLA 로멜라(RoMeLa) 연구소에서는 세계적인 로봇공학자이자 연구소를 이끄는 데니스 홍 교수의 특강을 들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세계를 무대로 도전하며, 미래 항공우주와 첨단과학분야를 이끌어갈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과학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용섭 기자 ays@

인천교육청, 교육공동체 안보의식 높여

을지연습 국민참여 軍 체험 프로그램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지난 7월 19일 시교육청 정보센터에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2026년 을지연습 국민참여 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6년 을지연습 정부지침에 따라 '학생·교직원·학부모가 참여하는 민간군 통합 정부 연습'을 실현하고, 교육공동체의 안보의식과 애국심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육군 제17보병사단과 협력해 진행됐으며, ▲실제 군사 장비(총기, 조준경 등) 전시 및 설명 ▲군악대기 체험 ▲전투식량(간 빵 등) 시식 체험 ▲각종 교육과 전쟁 관련 사진 전시 등으로 구성됐다.

도성훈 교육감은 "오늘 군 체험 프로그램은 학생과 시민, 교직원 이 한마음으로 비상시 대응 역량을 다지고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한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민간군 통합 연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인천 교육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각 교육지원청에서도 을지연습 기간 중 지역 실정에 맞는 국민참여 프로그램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안용섭 기자 ays@

강화 갑룡초,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3~6학년 60명 대상 'AI랑 노는' 방학 캠프 운영

인천 강화 갑룡초등학교(교장 김성환)는 지난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3~6학년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AI랑 노는' 방학 캠프를 운영했다.

이번 캠프는 신정 원원이 당초 계획을 크게 웃돌면서 더 많은 학생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개 분반 순환 수업으로 확대

운영했다. 학생들은 개강식을 시작으로 5일간 매일 6차시에 걸쳐 다양한 디지털 체험 활동에 참여했다.

캠프는 학생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협업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체험·탐구 중심으로 구성했다.

기존 레고 스파이크 프라임과 레트로 아케이드 수업에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강좌를 새롭게 추가해 학생 중심의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창작 활동을 운영했다.

또한 교실별로 주강사와 디지털 튜터가 함께 지도해 학생 개별 활동을 지원했다.

김성환 교장은 "이번 캠프가 학생들이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를 직접 체험하며 디지털 소양과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안용섭 기자 ays@

S2B www.S2B.kr
학교장터



우선구매대상

인체에 무해한 무독성의 친환경 다중 OH 라디칼과 나노버블수를 이용한

그리스트랩 오수정화장치

그리스트랩 오수처리장치로 청소 및 유지관리는 수월하게!
급식 위생과 직결되는 조리실 환경을 청결하게!



하스쿨

한아름테크 (전남 총판)

전화 0505-629-3366
팩스 0505-619-3366

피겨 간판 신지아 “이번 시즌 멋진 경기, 클린 경기 보여드리고 싶어요!”



포토인터뷰

무더운 여름, 다음 시즌을 위해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피겨 스케이팅 국가대표 신지아 선수를 태릉실내빙상장에서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훈련하는 모습을 취재했다.

■ 신지아 선수,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근황 간단히 전해 주세요.

“쇼트 프로그램, 프리 스케이팅 둘 다 새 프로그램을 받아서 비시즌 동안 열심히 훈련 중이에요.”

■ 2026-2027 시즌 쇼트·프리 프로그램에 사용할 곡과 안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어떤 곡이 선택됐는지 선풍 배경이나 기타 관련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쇼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제프리 버틀 안무가 선생님께 안무를 받았고 이번 쇼트 프로그램의 음악은 막스 리히터의 도나 노비스 파첸 2 버전(Max Richter's Dona Nobis Pacem 2-우리에겐 평화를 주소서)을 받았는데 이 곡 자체가 고요함 속에서 시작해서 점차 음악이 고조되는 방향으로, 강렬하게 흘러가는데 거의 쇼트 프로그램 마지막 부분에서는 정말 음악이 뿔뿔 터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표현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또, 프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처음 같이 작업해보는 세린 분 안무가 선생님께 안무를 받게 되었고, 프리 음악은 화양연화 OST예요. 화양연화 영화 자체가 굉장히 멋진 것,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절제된 사랑을 담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표현하려고 굉장히 노력 중이에요.”

■ 프리 스케이팅은 음악이 3개(Yumeji's Theme, Efude, Timelaps) 아니었나요?

“네, 세개가 맞아요. 프리 스케이팅 스텝 부분에는 Timelaps라는 다른 음악이 섞여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화양연화를 떠올리면서 프로그램 자체 연습하고 있기 때문에 메인은 화양연

화 음악이라고 보면 되요.”

■ 이번 쇼트 프로그램, 프리 스케이팅 안무도 새로 받았는데 주요 포인트나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쇼트 프로그램은 스텝 시퀀스 부분이 가장 포인트라고 생각되는데요. 음악 후반부가 점점 휘몰아치면서 고조되는 느낌의 음악이기 때문에 후반부를 안무와 함께 좀 더 중점적으로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 이번 시즌 점프, 비점프요소에 대한 채점 기준 변화가 있는데 이에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연기 구성의 변화같은 것이 있을까요?

“일단 점프 구성이 점프 일곱 개에서 여섯 개로 바뀌게 되면서 지금 연습 중인 데 제가 느끼기에는 큰 불편함은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연습 중이에요.”

■ 경기 출전전의 심리적 긴장감은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경기전 본인만의 루틴이나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일단 대회때는 긴장에 많이 되는데 그럴 때 항상 생각하는 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또 긍정적인 생각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또, 다 내가 할 수 있는 거고, 어려운 거 하나 없다고 생각하고 생각을 하면서 타면은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 신지아 선수는 유연성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우아한 연기, 실수가 거의 없는 기술 구사 등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단점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 단점은 체력 체력 같아요. 좀 더 후반부 가서도 퍼포먼스적으로 더 끌어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지상훈련에서는 어떤부분을 중점적으로 훈련하고 있나요?

“체력 훈련도 계속하고 있고 또 점프



훈련도 자주 하고 또 아무래도 피겨는 회전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회전 운동도 많이 하고 있어요.”

■ 지난 밀라노·코르티나남페초 동계 올림픽이라는 큰 대회에 출전, 11위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경기에 대한 아쉬움도 있을 것 같고, 도움이 된 점도 있을 것 같은데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아쉬웠던 점은 올림픽 무대에서는 정말 완벽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제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아서 그게 정말 속상했던 것 같지만 그래도 이번에 이렇게 올림픽같은 큰 대회에 출전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고 또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또 많은 관

중분들 앞에서 제 프로그램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 먼 미래긴 하지만, 2030년 프랑스-알프스 동계올림픽 출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밀라노 올림픽을 경험하면서 정말 특별히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정말 즐거웠기 때문에 또 다음 올림픽에 대한 목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알프스 올림픽에도 꼭 출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 2026-2027시즌 출전 예정인 대회 알려주세요.

“일단 쉐린저 대회가 시작인데요. 롬바르디아 트로피랑 데니스텐 메

모리얼을 생각하고 있고 또, 이번 시니어 그랑프리 대회는 스케이트 캐나다랑 NHK 트로피에 초청을 받게 돼서 출전을 할 예정입니다.”

■ 이번 시즌 목표가 있을 것 같은데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늘 그렇듯이 클린경기를 이번 시즌에는 꼭 여러 팬분들께 또 많은 관중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가장 큰 목표이고 또 계속해서 시즌 베스트, 퍼스널 베스트를 세워 나갔으면 좋겠어요.”

■ 가장 애정하는 경기복, 음악, 안무가 있다면? 그리고 시도해 보고 싶은 장르가 있다면요?

“제 최애 프로그램은 Not about Angels 프로그램을 가장 좋아하고 또 의상은 주니어 첫 시즌 프리 프로그램 의상을 제일 좋아해요. 그리고 또 해보고 싶은 음악 장르 같은 경우에는 탱고 쪽도 많이 해보고 싶고 또 되게 강렬한 음악도 해보고 싶어요.”

■ 해외 많은 나라, 경기장을 가보셨을텐데, 가장 마음에 드는 나라와 경기장이 있었다면?

“가장 좋았던 링크는 딱히 없는데, 충칭(Cup of China 2025)이 시설이 좋았던 것 같아요.”

■ 일본 같은 데는 가깝기도 하지만 먹는 것도 입에 잘맞고 그래서 일본도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요?

“제가 일본대회를 아직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아서 이번이 처음(NHK Trophy)이에요. 그래서 빨리 경험해 보고 싶어요.”

■ 훈련이 없을 때 주로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나요, 취미

는요?

“보통 쉴 때는 정말 집에만 있을 때도 있고 아니면 날 잡고 친구랑 나가서 놀 때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집에서 베이킹을 한다던지 아니면 그냥 집에 있고, 음악을 막 즐겨듣는 편은 아니예요.”

■ 신지아 선수를 응원하고 사랑하는 수많은 팬분들이 거는 기대가 클 것 같습니다. 팬분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항상 묵묵히 저를 응원해 주시는 많은 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이번 시즌에는 처음 선보이는 느낌의 프로그램들일 것 같은데 이번 시즌에도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겨 스케이팅 유망주에서 어느새 피겨 스케이팅 간판으로 우뚝 선 신지아가 이번 시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어떤 멋진 결과를 낼지 기대된다.

박근형 기자 pkh@



인터뷰 | 부산광역시의회 김효정 교육위원장

“부산교육의 가장 큰 과제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간 교육격차 선제적 대응하는 것”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 정책과 교육예산을 심의·의결하며 부산교육의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상임위원회다. AI·디지털 전환, 학령인구 감소, 교육격차 해소, 학생 안전, 교육복지 등 교육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교육위원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교육연합신문은 부산광역시의회 김효정 교육위원장을 만나 부산교육의 주요 현안과 미래 비전, 교육청과의 협력, 학생 안전, 미래인재 양성 등 부산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 철학과 의정활동의 방향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의 가치는 모든 학생이 출발선과 관계없이 자신의 가능성을 충분히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 아이들의 오늘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 교육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필요한 정책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잘못된 부분은 분명하게 견제하겠다. 학생·학부모·교직원에게 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 부산교육이 현재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위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인가?

“부산교육의 가장 큰 과제는 학령인

구 감소와 지역 간 교육격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교육의 질은 높아져야 하며, 어느 지역에 살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작은학교와 원도심 학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돌봄·문화가 함께하는 지역 교육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교육위원회도 학교 현장의 변화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실제 혜택으로 이어지는지 꼼꼼히 살피겠다.”

■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어떤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교육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보는가?

“의회와 교육청은 서로의 역할은 분명히 하되 부산교육 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협력해야 한다. 교육청은 현장의 문제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회는 합리적인 정책에는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특히 교육 변화를 위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듣고 정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상시적인 소통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AI·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부산 학생들의 미래역량 강화를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AI 시대의 교육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AI를 올바르게 활용하고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학생들이 AI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적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경험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디지털 윤리와 정보보호, 미디어 리터러시 등 책임 있는 디지털 시민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위원회의 핵심 전략은 무엇인가?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교육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기초학력은 교육의 출발점인 만큼 학생별 진단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원

도심 등의 작은학교와 교육취약지역에는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과 교육인프라를 적극 지원하겠다. 궁극적으로 지역이나 가정환경 때문에 학생의 교육 기회가 달라지지 않도록 교육격차를 세밀하게 살피고 보완하겠다.”

■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가치다. 학교 내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화재·지진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한 안전관리 체계와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위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정책은 무엇인가?

“학생의 안전은 어떤 교육정책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선제적인 보수·보강을 강화하고, 화재·지진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한 실질적인 훈련과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 아울러 등하굣길 교통안전시설을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상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 정신건강 증진, 교권 보호가 함께 실현되는 건강한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건강한 학교문화는 학생의 권리와 교사의 교육활동이 서로 존중되는 환경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한다. 학교폭력은 사후 처벌도 중요하지만 조기 발견과 예방교육, 상담과 회복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며, 동시에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

당한 교육활동은 보호해야 한다. 학생과 교사가 서로를 보호하고 존중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학교문화만들어가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경쟁력 강화와 지역 산업이 요구하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부산의 직업계고가 단순히 취업을 위한 학교가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고 지역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본다. 지역 기업과 대학,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변화하는 미래산업에 맞춰 AI·디지털, 해양·항만, 관광·서비스 등과 연계한 교육과 실습 기회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졸업 후 지역에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취업·정주가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는데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

■ 교육예산 심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은 무엇이며,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 편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계획인가?

“교육예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용하는 것이다. 사업의 규모나 예산액보다 실제 교육적 효과와 현장의 체감도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반복적·관행적인 사업이나 성

과가 불분명한 사업은 면밀히 검토하고, 학생 안전과 기초학력, 교육격차 해소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재원이 우선 배분되도록 하겠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원할 사업은 확실히 지원하고,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하는 책임 있는 심사를 하겠다.”

■ 끝으로 부산의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과 부산교육의 미래 비전을 들려주시기 바란다.

“부산교육의 미래는 결국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위원회는 학생에게는 더 좋은 교육 환경을, 학부모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교육을, 교직원에게는 존중받으며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필요한 정책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교육청에 대한 견제와 감시도 충실히 하겠다.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교육 때문에 부산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부산을 만드는 데 교육위원장으로 최선을 다 하겠다.”

학생 한 사람의 성장은 부산의 미래를 키우는 일이며, 안전한 교육환경은 그 출발점이다.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하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영현 기자 ljh@

부산교육청, 770억 규모 추경 “공교육 강화”

교육복지·교육환경 개선 집중... 9월 부산시의회 심의·의결 거쳐 최종 확정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지난 8월 14일 총 770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추경 재원은 보통·특별교부금을 포함한 이전수입, 자체 수입 및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등을 반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은 ▲미래사회 핵심 역량 함양을 위한 공교육 경쟁력 강화 ▲학생 중심의 교육복지 및 안전망 강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현장 중심 교육 지원을 중심으로 편성하여 학생의 균형 있는 성장과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첫째, 공교육 경쟁력 강화에 189억 원을 편성해 미래사회 학생 핵심 역량 함양에 적극 나선다.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에 71억 원을 투입하며, 대학생 튜터를 활용한 기초학력 보장, 예술 감사 지원, 1인 1스포츠 활성화 등 학생의 학습과 예술·체육 활동을 균형 있게



지원한다.

직업교육과 AI·디지털교육 강화에도 112억 원을 편성해, 마이스터고 육성, 협약형 특성화고 지원 등으로 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직업교육 체계를 강화하고 AI·디지털교육 기반 확충으로 학생들의 미래 대응 역량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 교원 전문성 향상에 6억 원을 반영하여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한 교원의 대응력을 높인다.

둘째, 학생 중심의 교육복지 및

안전망 강화에 69억 원을 편성했다.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확대 및 돌봄강화 등에 47억 원을 반영해, 다양한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가정의 돌봄 공백을 줄인다. 이와 함께 21억 원을 들여 특수교육, 학교폭력 예방, 학생 정신건강 지원 등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에 지원을 강화하고, 아동보호구역 CCTV 설치 등에 1억 원을 편성해 안전한 통학환경도 꼼꼼하게 챙긴다.

셋째,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현장 중심 교육 지원에 512억 원을 편성했다. 햇빛이음학교 구축에 47억 원을 투입해 학교 내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대하고,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조성 기반을 마련한다. 노후·안전시설 개선 등에 465억 원을 반영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키우고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학생 한 명 한 명의 배움과 성장을 뒷받침하고 학교가 교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하반기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2026년도 구역 CCTV 설치 등에 1억 원을 편성해 안전한 통학환경도 꼼꼼하게 챙긴다.

이정현 기자 ljh@

유엔PEC “강뉴합창단 평화의 울림에 감사”

나눔과 사회적 책임 실천하며 후원에 동참한 (주)엠오티에 감사패 전달

에티오피아 6·25전쟁 참전부대인 강뉴부대 후손으로 구성된 강뉴합창단이 부산에서 펼친 감동의 평화음악회를 후원한 기업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유엔PEC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김희경)은 8월 19일 오후 3시 (주)엠오티(대표 마점래)를 방문해 강뉴합창단 부산 방문과 평화음악회에 후원과 관심을 보내준 데 대한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희경 이사장을 비롯한 유엔PEC 관계자와 자문위원들이 참석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앞서 지난 7월 16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부산을 찾은 강뉴합창단은 유엔PEC사회적협동조합의 초청으로 부산을 방문했다. 강뉴합창단은 방문 기간 동안 유엔기념공원 헌화식을 시작으로 참전용사와 후손들의 희생을 기리고, 한·에티오피아 간 우정을 되새기는 다양한 일정을 소화했다. 특



히, 평화음악회에서는 음악을 통해 전쟁의 아픔을 넘어 평화와 우정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김희경 이사장은 감사의 인사말을 통해 “강뉴합창단의 부산 방문과 평화음악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던 것은 기업과 시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후원이 있었기

에 가능했다”며, “특히 나눔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며 후원에 동참해주시는 (주)엠오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에티오피아 강뉴부대는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피와 땀을 흘렸던 소중한 인연”이라며, “그 후손들이 부산에서 음악으로 평

화의 메시지를 전한 이번 행사가 한·에티오피아 간 우정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감사패를 받은 마점래 (주)엠오티 대표는 “뜻깊은 행사에 함께할 수 있어 오히려 감사하다”며, “강뉴부대 용사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보여준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그 후손들이 전하는 평화와 감사의 메시지에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 대표는 이어 “기업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기업의 또 다른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해 의미 있는 일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주)엠오티는 이차전지 장비 전문 기술기업으로, 삼성SDI 기계설계 부문에서 14년간 근무한 마점래 대표가 창업해 TV 자동차 장비를 시작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왔다. 특히, 마점래 대표는 기술력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피와 땀을 흘렸던 소중한 인연”이라며, “그 후손들이 부산에서 음악으로 평

이정현 기자 ljh@

교육칼럼

지구가 보낸 경고장... 국가와 교육이 답할 ‘기후재난’의 골든타임

이상기후의 재난속 위협받는 생존권
임기응변식 대응 넘어 ‘기후 안보’와 ‘실천형 교육’ 대전환 시급

해마다 지구촌을 강타하는 이상기후는 이제 일시적인 자연현상이 아닌 인류의 일상을 파고드는 복합 재난으로 고착화되었다. 올해만 보더라도 유럽 전역에서는 섭씨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으로 수만 명의 초과 사망자가 발생했고, 북미와 아시아 곳곳은 기습적인 집중호우로 도시 전체가 침수되는 비극을 겪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기존의 장마 공식은 무너진 지 오래며, 예고 없는 국지성 폭우와 폭염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세계기상기구(WMO)와 UN이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를 넘어 ‘지구 열열화(Global Boiling)’ 시대가 왔다”고 경고했듯, 기후재난의 발생 빈도와 피해 범위가 매년 가파르게 확산하는 현상에 대해 우리는 엄청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상기후는 단지 어쩌다 찾아오는 계절적 불운이 아니라 인류와 미래 세대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국가적 재난이다. 과학자들은 오늘 우리가 겪는 혹독한 더위와 기습 폭우가 앞으로 맞이할 수많은 날 중 ‘가장 온화했던 날’일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프랑스의 저명한 사회학자 브뤼노 라투르가 언급했듯 인류는 이미 ‘기후적 난민’의

시대에 진입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교육현장의 학사 운영 중 폭우나 폭염이 습할 때 단축수업이나 휴업을 안내하고 주의를 당부하는 수준의 임시방편으로는 다가올 미래를 감당할 수 없다. 국가 차원에서 기후위기를 ‘국가 안보 및 국민 생존’의 문제로 규정하고, 이에 발맞추어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 교육의 방향성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해야 하는 이유다.

그렇다면 학교 현장과 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첫째, 국가 차원의 ‘기후적응형 학교 인프라 표준화’와 재정 지원이다. 학교 건물 자체의 단열 성능을 극대화하고 옥상 녹화 및 빗물 저류 시설을 의무화하는 ‘그린 스마트 건축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폭염 시에도 학생들이 안전하게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모듈러형 실내 체육/놀이 공간’ 확충을 국가 예산으로 우선 지원해야 한다.

둘째, 체계적인 ‘기후 데이터 기반 학사운영 예측 시스템’ 구축이다. 각 지자체 및 기상청과 연계하여 지역별·학교별 기후 위험도를 실시간 측정하고, 이에 따른 단계별 대응 매뉴얼(체육 수업 전환, 등하교 시간 자율 조정, 온라인 수업 전환 기준 등)이

현장에서 혼선 없이 작동하도록 행정적·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

셋째, 지식 전달을 넘어선 ‘실천형 기후 안보·생태 교육’으로의 대전환이다. 기후변화 교육을 단순한 환경 과목의 일부가 아니라, 아이들이 생존 역량을 키우고 탄소중립 사회를 이끌어갈 ‘기후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필수 교육과정으로 재편해야 한다. 학교 내 에너지 소비를 학생들이 직접 측정하고 참여하는 실천형 프로젝트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중국의 고전 『서경』에는 “사전에 대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다”라는 가르침과 함께, “망한 뒤에 도모하면 이미 늦다”는 경고가 전해진다. 교육의 본질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배우며 미래를 꿈꾸도록 울타리가 되어주는 데 있다. 이상기후라는 엄중한 시대적 경고 앞에서, 국가의 선제적 장기 대책과 교육 현장의 과감한 실천을 통해 국민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든든히 지켜내야 할 때다.



■ 박진우

◇ 부산 해빛초등학교 교장

부산 사상구, 지자체 일자리대상 ‘특별상’

부산광역시 사상구(구청장 서태경)가 고용노동부 주관 ‘202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부문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8월 20일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목표와 대책, 추진 과정과 일자리 창출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는 일자리 분야 대표 시

상이다. 사상구는 노후 공업지역과 영세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지역 고용 여건을 반영해 ▲산업혁신과 기업성장 지원 ▲지역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청년 취·창업 지원 ▲여성·중장년·노인 등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확대를 추진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25년에는 일자리 창출 목표 11,020개를 넘어 총 11,956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목표 대비 108.5%를 달성했다. 청년고용

률은 42.4%로 직전 3년 평균보다 3.4%p 상승했으며, 경제활동참가율도 58.2%로 전년 대비 1.6%p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 사업으로는 사상드림스타트시티 조성과 사상공업지역 대전환, 제조업체 근로환경 개선 등 기업 성장 지원을 비롯해 지역 3개 대학 및 부산북부고용복지+센터와 함께한 일자리박람회, 지역 제조업 수요를 반영한 ‘사상형 소부장산업 공조냉동 기술인력 양성’,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을 지원하는 ‘쑥쑥키움 일자리 상생 대체인력 지원사업’ 등이 있다.

한난희 기자 hnh@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현!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쿨러닝 차열페인트 솔루션!

온도 저감형 친환경 수용성 차열 페인트

WHY? 쿨러닝 차열페인트란?

빛을 반사하고 열을 차단하여 건물과 도로의 온도를 낮추고, 에너지 사용량도 절감하는 페인트!

표면온도 20~40°C 저감

실내온도 3~5°C 저감

냉방에너지 30% 절감

탄소배출 30% 저감

지속가능한 스마트 친환경 도시 구현!

쿨러닝 - CR (건축용)

쿨러닝 - CP (바닥용)

쿨루프 / 클레이브먼트 효과!

서울시 '하안지붕' 프로젝트 실험시 평균 2°C 온도 저하 가능
자료: 서울연구원

전세계 27개 도시 쿨루프 효과 도입 실험 결과, 냉방에너지 15~35% 감소, 이산화탄소 20% 저감, 연방 100억kWh, 0.4 백만 톤 절감 10억 달러, 대기환경과 스모그 현상 개선
자료: Global Cool Cities Alliance

주차장 및 도로의 클레이브먼트 시공효과
표면 온도 20°C 저감, 균열 및 변형 개선, 콘크리트 수명 연장 및 유지비 절감
자료: Clarkson Univ. TTRC 실험실영향센터

20~40°C 온도 저감

3~5°C 실내온도 저감

30% 에너지 절감

30% CO₂ 배출 저감

서울특별시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2050 탄소중립! 국가 정책 지원

환경부

- 무공해차 보급
- 무공해차 전환 시 부문별 전환에 인센티브, 금융 혜택
- 열화율제 사업유리·생원외인 목표 지원

국토부

- 건축, 녹지 도시 건축을 저역 성능 강화 지원
- 스마트시티 탄소중립 사업 확산 지원

국회

-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추진
- 기후위기 적응 예산 지원
- 법제화 추진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 2050 탄소중립 이행 위해 쿨루프 차열페인트 보급과 추진!

한국 공약 사업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교육환경을 약속합니다!

- ✓ 학교 건물 환경 개선 선 지원
- ✓ 어린이보호구역 온도 저감
- ✓ 폭염 대응 실현의 온도 저감 솔루션
- ✓ 저예산 친환경 미래 인프라 확충
- ✓ 냉방·전력·유지비 3대 비용 절감

교육 환경 개선 · 에너지 절감 · 탄소중립 실현

사면 적용 예시

공공시설·복지시설

학교·교육시설

공장·물류·상업시설

도로·주차장·교량

산업·업무·공공시설

공공시설·복지시설

학교·교육시설

공장·물류·상업시설

도로·주차장·교량

산업·업무·공공시설

쿨러닝 차열페인트로 더 시원한 도시, 더 안전한 보행, 더 깨끗한 미래를 만듭니다!

친환경 VOC, 중금속 유해물질 ZERO

미세플라스틱 빗받기 성능으로 물 오염 방지 및 수질 개선에 도움

반사성능·고내구 태양광 반사를 85%+ 내후성·내오염성 우수 기능 유지 성능 우수

국제인증·협약 미국 CRRC 인증 (부식, 반사를 최고 등급)

최초·혁신 인증 최초 도로형 CRCP 인증 (부식, 반사를, 혁신제품 지정)

높은 탄소저감 냉방에너지 30% 절감 탄소배출 30% 저감 (제품 기준 수치)

가치경쟁력 비용 절감 효과 탁월 시공이 간편하고 경제성 향상

전국 시공 및 기술문의 Tel: 070-7777-3918 Fax: (+82) 61-724-7236

신아이앤에스

전북 올봄 학교로 소규모 학교 교육격차 줄여

9월 4일까지 신청 받아 선정·계약 거쳐 내년 3월부터 지원... 차별 없는 교육 기회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이 농산어촌 및 소규모 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 부담을 덜고, 학생들에게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7년 전북 올봄(ALL)학교’ 운영 신청을 받는다.

전북 올봄학교는 강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이 비용 부담 없이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이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과 행정업무를 함께 지원하는 전북형 방과후학교 지원 모델이다. 학기 중은 물론 여름·겨울 방학 동안에도 중단 없이 방과후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018년 14개교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올해는 초등학교 237개교와 중학교 58개교 등 총 295개교에서 운영하고 있다.

전북 올봄학교의 핵심은 전 학년 완전 무상 교육이다. 학생·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수익자 부담 없이 운영함으로써 교육비 부담은 낮추고 학생의 프로그램 선택권은 넓힌다.

지역이나 학교 여건에 따라 방과후 교육 기회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교육에서 적극 보완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교육지원청이 강사와 업체

의 모집·선정·계약을 비롯해 제안서 평가, 예산 편성·지출, 서류 관리 등을 지원함으로써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교는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학생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원거리 출강 강사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농산어촌 지역 출강 강사에게는 교통비를 지원하는 등 소규모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내년에는 초등학교의 경우 수익자 부담금이 없는 6학급 이하 학교, 중학교는 전교생 60명 내의 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9월 4일까지 올봄학교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 대상학교와 프로그램 운영 규모를 확정하고, 교육지원청별 강사 및 위탁업체 선정·계약 등을 거쳐 2027년 3월부터 지원에 들어간다.

장기영 미래교육과장은 “학생이 어느 지역,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에 따라 배움의 크기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학생들이 비용 걱정 없이 원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학교 안에서 다양한 배움과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홍태 기자 kht@

2학기 학교 연계 공동교육과정 40개교 운영

전북교육청, 오프라인 강좌 67개·온라인 강좌 27개 12월 18일까지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이 2026학년도 2학기 학교 연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다른 학교와 연계해 함께 개설·수강하는 교육과정으로, 고교학점제에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도내 고등학생 1,122명이 참여하는 2학기 학교 연계 공동교육과정은 22일부터 12월 18일까지 전주 고등학교, 남원고등학교 등 40개 거점학교에서 진행된다.

운영 강좌는 고급 대수, 물리학 실험 등 오프라인 67개 강좌와 세계 문제 미래 사회, 도시의 미래 탐구 등 온라인 27개 강좌 등 총 94개다.

지역별로는 전주 28개, 군산 12개, 익산 12개의 강좌가 운영된다. 1학과와 비교하면 강좌 수는 17개(22%), 참여 학생 수는 126명(12%)이 증가해 학생들의 과목 선택



폭권이 한층 확대됐다.

특히 김제여자고등학교, 상산고등학교 등 8개 학교가 신규 거점학교 운영에 참여한다.

또, 그동안 학교 연계 공동교육과정이 개설되지 않았던 김제·완주 권역에도 강좌가 새롭게 개설됨에 따라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과목 선택을 지원하는 등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김홍태 기자 kht@

전주 신흥중·고 학교복합시설 교육부 공모 선정

사업비 90억 9천만원 투입 연면적 1850㎡ 지상 2층 규모 건립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교육부가 주관하는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전주 신흥중·고등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사립학교(호남기독학원)가 선제적으로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교육청과 전주시가 긴밀히 협력해 이끌어낸

‘민·관·학 상생’의 모범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주 신흥중·고 학교복합시설은 총사업비 90억 9,000만 원(교육부 사업지원비 28억 500만 원)이 투입돼 연면적 1,850㎡,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주요 시설로는 학생과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개방

형 도서관’과 ‘스터디카페’를 비롯해 인공지능(AI)·코딩 등 디지털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스마트 프로그램실’이 조성된다. 특히 이번 사업 선정은 천호성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통합형 지역문화 복합시설 조성’의 신평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은 전주 신흥중·고 학

교복합시설을 원도심 교육격차 해소의 거점으로 삼아 학생들에게는 쾌적한 자기주도학습 공간을, 지역주민들에게는 문화·체육 인프라를 제공해 지역사회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천호성 교육감은 “앞으로도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학교가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통합형 지역문화 복합시설 조성을 도내 전역으로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홍태 기자 kht@

30년 이어온 우정 바탕으로 미래 교육 협력 강화

전북교육청-중국 길림성교육청, 국제교류수업 활성화 등 논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중국 길림성교육청이 30년간 이어온 교육교류를 바탕으로 학생 교류 확대와 국제교류수업 활성화 등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한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유청천 부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길림성교육청 대표단이 지난 17~18일 전북을 방문했다.

이번 대표단은 길림성교육청 국제협력교류처장과 기초교육처 과장, 장춘외국어학교 교장, 길림성제2실험학교 부교장 등 교육행정 및 학교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대표단은 방한 이틀째인 18일 전주시대부고와 고창북고등학교를 방문해 양국 학교 간 국제교류수업 운영 현장을 살펴보고, 학생 중심의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고창북고등학교에서는 길림성 지역 학교와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류수업과 관련한 업무협약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구정치 주광주 중국총영사도 참석해 양 지역 간 교육교류와 협력에 힘을 보탰다.

학교 현장 방문에 이어 오후에는 전북교육청에서 천호성 교육감 주재로 공식 간담회와 환영 행사가 열렸다.

양 기관은 △교육교류·협력 협약 연장 △전북교육청 10대 핵심과제인 ‘전북유학’ 확대를 위한 협력 △양국 학교 간 국제교류수업 활성화 △내년 상호 방문단에 전

북 학생을 포함하는 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

전북교육청과 길림성교육청은 1996년 첫 교육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한 이후 30년간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천호성 교육감은 “오랜 친구인 길림성교육청 대표단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과거의 성공적인 교류를 발판으로 이제는 학생들이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넘어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세계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한 차원 높은 협력의 길을 열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30년간 이어온 길림성교육청과의 우정을 바탕으로 양국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류와 협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유청천 부청장은 “따뜻하고 성대한 환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논의한 구체적인 협력 사업들이 조속히 결실을 맺어 양 지역 학생들이 더 넓은 세상에서 꿈을 펼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홍태 기자 kht@

93가지 인성 덕목을 담은 삶의 지침서

인성교재보급을 통한 체계적인 인성교육

인성93

윤문원 지음

저자 윤문원

인성교육전문가 중·고교과서 다수게재

출판사 : 쌤크파워 (440p) 정가 : 24,000원

쿠팡,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영풍문고 등 전국서점 및 온라인 서점에서 구입가능

단체구입문의 : 010-7401-9855 유기성 본부장
(학교도서관 및 공공기관 도서구입관련)

인성교육진흥법관련조항제11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및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제1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지원, 인성교육프로그램개발 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헌법적 가치 파괴” 전북교육청, 정부 개편안 강력 반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는 구조를 폐지하려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원 단체, 학부모, 학생 등 교육 공동체의 목소리가 철저히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가 교육정책의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전제라는 점에서, 이번 교부금 개편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을 보장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이러한 헌법적 가치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 역시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하며,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통해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편안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대응에도 역행한다는 입장이다.

학생 수 감소가 곧바로 교육비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내국세 연동방식 폐지 이후 지방교육재정이 크게 위축될 경우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취약한 농산어촌과 소규모 학교부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부금 감소는 농산어촌·소규모 학교의 교육 여건을 악화시켜 학교 통합합 압력을 높이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켜 지역소멸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여기다 급식, 돌봄, 정서지원, 안전관리, 다문화·특수교육, 영유아 교육 지원, 평생교육 등 학교가 책임져야 할 분야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예산은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천호성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의 20.79%로 보장한 것은 어떤 국가적 어려움이 와도 교육 예산만큼은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라며 “이 기조를 깨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한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천 교육감은 “정부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한다고 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고자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며 “지역소멸 위기와 농산어촌 작은 학교를 살릴 수 있는 어떠한 대안도 없이 교부금 개편을 진행하려는 것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홍태 기자 kht@

전재학의 교육칼럼

EBS ‘위대한 수업’이 던지는 교육적 효과

매 순간 더 강력한 감각적 자극을 찾아 헤매는 어른과 아이들에게, 과연 방송 매체는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을까?

오늘날 대한민국 가정의 거실과 아이들의 방 안 풍경을 잠시 가만히 들여다보자.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손바닥 크기의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15초짜리 숏폼 영상이 끊임없이 넘어가고, 알록달록한 자극과 도파민 폭탄이 아이들의 뇌를 실시간으로 마비시키고 있다. 그 뿐이라. 자극적인 자극과 무의미한 웃음이 범람하는 TV 매체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매 순간 더 강력한 감각적 자극을 찾아 헤매는 어른과 아이들에게, 과연 방송 매체는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 절망적인 매체 환경의 사막 한가운데서 마치 오아시스처럼 빛나는 프로그램이 하나 존재한다. 바로 EBS1의 'EBS 위대한 수업,

Great Minds'(이하 '위대한 수업')이다. 만약 누군가 “현재 대한민국 TV 매체 중 미래 세대에게 가장 교육적 의미와 효과가 탁월한 프로그램이 무엇인가?” 하고 묻는다면, 망설임 없이 이 프로그램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순한 교양 프로그램을 넘어, 인류가 축적해 온 지혜의 정수를 안방극장에 직배송해 주는 거대한 '지적 축제'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지식 복지'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BS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공동 기획한 '위대한 수업'은 격이 다른 클래스로 출연진 라인업을 보고 있으면 입이 떡 벌어진다.

리처드 도킨스, 마이클 샌델, 유발 하라리, 슬라보예 지젝, 주디스 버틀러, 폴

크루그먼 등 세계적인 사상가, 과학자, 경제학자, 예술가들이 줄지어 출연한다. 이름만 들어도 대학 도서관 깊숙한 곳에 꽂힌 두꺼운 전공 서적이 떠오르는 이 거장들이,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한국의 미래 세대에게 직접 말을 걸어온다.

이 프로그램의 진가는 지식의 '눈높이 배송'에 있다. 세계적 지식들이 자신의 평생 연구 업적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고 직관적인 언어로 풀어내고 있다.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을 아우르는 이 명강의들은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세계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등등 수많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숏폼 영상의 파도 속에서 산산조각 난 아이들의 집중력을 다시 묶어 세우고, 깊은 사고의 호수 속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강력한 지적 인력(引力, Gravity)을 발휘하는 것이다.

‘위대한 수업’이 지닌 교육적 잠재력을 200% 폭발시키기 위해서는, 시청 방식을 완전히 뒤바꾸는 획기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리추얼(Ritual)이 결합되어야 한다.

첫째, ‘단 하나의 반론’ 던지기로 석학과 맞장 뜨는 질문 시합이 필요하다. 이제는 방송을 본 뒤 아이들에게 요약정리를 시키는 고문 아닌 고문을 중단시켜야 한다. 대신 “오늘 강연자의 말 중에서 가장 마음에 안 들거나 이해되

지 않는 한 가지를 찾아 석학에게 반박하는 질문을 쓰라”는 미션을 줄 필요가 있다.

둘째, '10분 가상 난상 토론'으로 교실과 거실을 소크라테스의 학당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학교 교실이나 가정에서 방송 시청 후 딱 10분간 '가상 토론회'를 열어 본다. “내가 오늘 나온 마이클 샌델 교수라면 정의란 무엇이라고 답할래?”라는 질문 하나가 아이를 수동적 시청자에서 능동적 질문의 주체로 탈바꿈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적 영웅의 '디지털 스크랩북' 만들기가 필요하다. 좋아하는 연예인의 포토 카드를 모으듯, 아이가 감명 깊게 본 석학의 핵심 명언과 자신의 생각을 적은 '지성 카드'를 디지털이나 노트에 수집하게 한다. 이는 지식을 점수로 환산하는 차가운 입시 도구가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멋진 지적 유산'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감성적 접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당장이라도 아이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을 가만히 내려놓게 하고 거실

TV 채널을 틀어보자. 그리고 세계의 거장이 던지는 목직한 질문 앞에 아이와 함께 앉아보자. 아이가 스크린 속 석학의 눈빛에서 호기심의 불꽃을 발견하고 “엄마, 저 사람은 왜 저런 생각을 했을까?”라고 물어오는 순간, 대한민국 교육을 바꿀 위대한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한다.



■ 인곡(仁谷) 전재학

-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 ◇ 前인천산곡남중학교 교장
- ◇ 前제물포고·인천세원고 교장
- ◇ [수능교과서 영어영역] [노스트라다무스] 공동저자
- ◇ [월간교육평론] [교육과사색] 전문위원 및 교육칼럼니스트

이수연의 고용정책 칼럼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기회보다 ‘다시 시작할 용기’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이 만드는 변화

“취업이 두려워했습니다.” 청년들을 만나면 의외로 자주 듣게 되는 말이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반복되는 실패와 불안, 그리고 자신감의 상실이 청년들을 사회 밖으로 한 걸음씩 밀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한동안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청년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을 만나는 일조차 부담스러워한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멈춰 서 있는 경우도 있고, 실패를 반복하며 스스로 가능성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취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도전할 힘을 잃어버린 것에 더 가깝다. 그래서 청년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채용공고가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운영되는 사업이 청년도전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단기간에 취업을 목표로 하기보다 구직을 포

기했거나 장기간 경제활동에서 멀어진 청년들이 다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데 의미가 있다. 진로 탐색과 취업 역량 강화는 물론 심리 회복, 자신감 향상, 사회적 관계 형성 등 청년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과정에 집중한다.

사람은 자신감을 잃으면 능력까지 잃은 것처럼 느끼기 쉽다. 그러나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청년들은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을 믿어주는 사람과 함께할 기회가 필요했을 뿐이다. 프로그램에 처음 참여할 때는 많았을 시간을 보내던 청년이 교육을 이어가며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함께 활동하는 또래들과 관계를 맺으며 다시 목표를 세우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경험은 취업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성장 과정이다.

특히 청년도전지원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자조모임이다. 자조모임은 단순한 친목활동이 아니라, 같은 고민을 가진 청년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다. 혼자였으면 쉽게 포기했을 고민도 또래와 함께 이야기하며 새로운 관점을 얻고, 서로를 응원하는 과정에서 다시 도전할 힘을 얻게 된다.

실제 자조모임에서는 채용박람회 참여하기 전 함께 관심 기업과 직무를 탐색하고, 기업 담당자에게 어떤 질문을 할지 미리 준비한다. 박람회가 끝난 뒤에는 각자가 얻은 채용정보와 직무 특성, 필요한 역량을 공유하며 서로의 구직 방향을 함께 고민한다. 특정 기업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검점과 부족한 부분

을 이야기하며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취업정보를 얻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혼자서는 막막했던 취업 준비가 함께 고민하고 정보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구체적인 목표로 바뀌고, 다른 참여자의 경험은 또 다른 청년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결국 자조모임은 청년들이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응원자가 되어 주는 성장의 공간인 셈이다.

특히 최근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취업 문제 하나로 설명하기 어렵다. 급변하는 산업 환경, 높아지는 채용 기준, 미래에 대한 불안은 청년들에게 끊임없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청년정책 역시 일자리를 연결하는 데 머물지 않고, 사회와 다시 연결되는 과정까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

현장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청년들은 생각보다 훨씬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만 그 가능성을 꺼낼 수 있는 계기와 환경이 부족했을 뿐이다. 누군가의 격려와 체계적인 프로그램,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경험은 청년들이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취업 준비 프로그램을 넘어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다시 설계하도록 돕는 사회적 투자라고 할 수 있다. 한 사람의 변화는 결국 가정의 변화로 이어지고, 기업의 미래가 되며, 지역사회의 활력이 된다.

우리는 청년들이 단순히 취업에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스스로 가능성을 믿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조금씩 결과보다 함께 걸어주는 시간이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 다시 시작할 용기다. 그리고 그 용기는 누군가의 관심과 믿음, 그리고 함께 걷는 동료 속에서 자라난다. 청

년도전지원사업이 만들어 가는 가장 큰 변화도 바로 그 지점에 있다.

다음 회차에서는 취업 지원을 넘어 평생학습의 기회를 넓히고, 경제선진화인을 비롯한 다양한 학습자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평생교육사업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 이수연

- ◇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MBA)
- ◇ (주)채움HRD 대표이사
- ◇ 고용·교육정책 및 HRD 분야 전문가
- ◇ 인천지방고용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 ◇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사회통합협의위원
- ◇ 인천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 ◇ 인천발달장애인훈련센터 전문가위원

최윤용의

100세 칼럼

장(腸)내 생태계의 붕괴와 염증의 악순환: 염증성 장질환을 제어하는 한의학의 역할

1. 복합적인 전신 면역 질환, 염증성 장질환의 경고 -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으로 대표되는 염증성 장질환(IBD)은 위장관에 발생하는 만성적이고 재발성이 강한 면역 매개 염증성 질환입니다. 이 질환은 단순한 소화기 문제를 넘어 유전적 감수성, 환경적 노출, 장내 미생물 불균형(dysbiosis), 그리고 점차 면역계의 비정상적인 활성화가 복잡하게 얽혀 발생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염증성 장질환의 발병은 유전적 요인뿐만 아니라 '후성유전-미생물군집-미토콘드리아 축(epigenetic-microbiome-mitochondrial axis)'의 조절 이상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장내 미생물이 생성하는 단쇄지방산과 같은 대사 산물들은 숙주의 후성유전학적 조절과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대사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상호작용이 무너지л 때 장 상피 장벽의 기능 부전과 만성 염증이 촉발된다는 것입니다.

2. 기존 표적 약물 치료의 한계와 대장암의 위험 - 현재 염증성 장질환 치료에는 염증 경로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생물학적 제제(항-TNF, 항-IL-12/23 등)와 소분자 억제제(JAK 억제제 등)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중증 환자의 증상 완화에 크게 기여했지만, 환자의 30~40%는 초기 무반응이나 내성 발생을 경험하며 완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역 억제제로 인한 감염

위험 증가, 높은 치료 비용, 그리고 약물 중단 시의 높은 재발률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장기간 지속되는 만성 장내 염증이 산화 스트레스와 유전적, 후성유전학적 변이를 유발하여 '염증성 장질환 유발 대장암(colitis-associated cancer)'이라는 치명적인 악성 종양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염증 기간이 7년을 초과하거나 염증의 정도가 심할수록 이러한 암화(Carcinogenesis)의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3. 장내 미생물 불균형과 세포 사멸 메커니즘 ‘페롭토시스(ferroptosis)’ -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장내 환경을 분석해 보면, 병의 초기 단계부터 장내 미생물의 심각한 불균형이 뚜렷하게 관찰됩니다. 특히 유익한 혐기성 세균이 급감하는 반면, 산소에 내성이 있거나 구강과 연관된 유해균이 장내로 유입되어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미생물 불균형은 장내 점막에 과도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최근 주목받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세포 사멸인 ‘페롭토시스(ferroptosis)’를 촉발합니다. 페롭토시스는 철분 대사의 이상과 지질 과산화(lipid peroxidation)에 의해 발생하는 비세포사멸성 세포 죽음으로, 장 상피 세포를 대량으로 파괴하여 장 점막 장벽을 무너뜨리고 2차적인 면역 염증 반응을 증폭시키는 핵심 원인으로 밝

혀졌습니다.

4. 염증성 장질환 치료의 총체적 대안: 침, 뜸, 한약을 활용한 다중표적 치료 - 최근 각종 체내 염증 상태의 복합적 병리 표적 및 다중 경로를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한의학적 치료가 염증성 장질환의 관리의 보완적 선택지로 부상하는 추세입니다. 침과 뜸 치료는 크론병 환자의 임상 활동 지수(CDAI)를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며, 피로감을 개선하고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뜸 치료와 침 치료의 병행은 밀착 연결 단백질(ZO-1 등)의 발현을 상향 조절하여 손상된 장 상피 장벽을 물리적으로 복구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한편, 복잡한 병리기전을 가진 이 질환의 약물 치료로는 한약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약에 포함된 폴리페놀, 알칼로이드(베르베린 등), 테르페노이드 등의 활성 성분은 면역 세포의 Th17/Treg 균형을 회복시키고, NF-κB, MAPK, PI3K/AKT 등의 염증성 신호 전달 경로를 동시에 억제하여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근본적으로 차단합니다.

5. 장내 면역 환경을 복원하는 일상 속 자가 관리법 - 염증성 장질환의 성공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의학적 치료와 함께 환자 스스로의 환경 및 생활 습관 교정이 필수적입니다.

·**항염증 식이요법:** 고지방, 고당분의

서구식 식단은 장내 유해균을 늘리고 장벽을 파괴하므로 피해야 합니다. 반면, 식이섬유와 폴리페놀이 풍부한 지중해식 식단은 단쇄지방산을 생성하는 유익균을 늘려 장벽을 튼튼하게 하고 면역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프로바이오틱스 및 프리바이오틱스 섭취:** 유익균과 그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의 섭취는 장내 미생물 불균형을 회복시키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규칙적인 강도 운동:** 적절한 신체 활동은 장내 염증을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및 금연:**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흡연은 면역 조절 유전자의 DNA 메틸화(후성유전학적 변화)를 일으키고 장내 미생물 군집을 악화시켜 크론병의 진행을 가속화하므로 반드시 관리되어야 합니다.



■ 최윤용

- ◇ 큰나무원의원 대표원장
- ◇ (주)오동생약 대표이사

김홍제의 목요칼럼

학교의 목적을 다시 묻다

학교는 근대국가가 만든 가장 성공적인 제도 가운데 하나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의 학교가 여전히 미래의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배움의 공간인지, 아니면 오래된 운영체제를 관성처럼 반복하고 있는지는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학교는 시대의 요구에 충실했다. 문제는 어느 순간 수단이 목적을 대신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문명이 쇠퇴하는 징후 가운데 하나는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는 일이라고 한다. 사람의 행복을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제도는 본래의 의미를 잃게 된다.

학교도 달라져야 한다. 학교는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가. 대학 시험은 배움을 돕기 위한 도구였지만 시험이 교육이 되었다. 성적은 성장의 기록이어서 했지만 인간의 가능성을 재는 잣대가 되었다. 대학은 교육의 한 과정이어서 하지만 대학입시는 학교교육의 종착점이 되었다.

1995년 5월 31일 발표된 5·31 교육개혁이 있었다. 교육개혁위원회는 공립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획일적 교육에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으로, 통제에서 자율과 책무성으로 교육의 방향을 바꾸겠다고 했다. 그 뒤로도 많은 교육개혁과 교육과정 개편이 있었다.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다시 묻는다. 왜 교육은 개혁을 거듭하면서도 입시의 벽을 넘지 못하는가. 제도를 고치면서도 교육의 목적은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가 경쟁력을

위해 인재를 길러야 한다. 맞는 말이다. 대학도 좋은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다.

학교는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가. 대학을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학생의 삶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 질문에 올바르게 답하지 않고 평가 제도만 바꾸는 것은 체운계를 바꾸면서 열이 내리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좋은 국가를 만들기 위해 쓸모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교육을 할 때 좋은 사회가 만들어지고 그런 사회가 결국 국가의 진정한 힘이 된다. 교육이 가야 할 길도,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도 그 순서에서 시작된다. 순리를 역주행하는 위험한 질주에서 대한민국의 교육을 위해 내려와야 한다. 학교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단순한 사실을 다시 기억하는 것. 우리 교육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답을 찾는 것이 아니다. 학교가 왜 존재하는지를 다시 묻는 일이다.



■ 김홍제

- ◇ 충청남도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장


특별인터뷰 제10대 부산광역시의회 강무길 전반기 의장

“교육 지키는 것이 부산의 미래 지키는 일”… 교육격차·학령인구 감소 적극 대응

제10대 부산광역시의회가 부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산은 해양수도 완성과 가덕도신공항,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동남권 광역경제권 구축 등 도시의 미래를 좌우할 굵직한 현안을 안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간 교육격차, 청년과 일자리 문제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과제 역시 시급하다.

특히, 제10대 부산광역시의회는 부산광역시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여소야대라는 새로운 정치적 환경을 맞았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부산 발전과 시민의 삶을 위한 주요 현안에서는 정파를 넘어 협력해야 하는 의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제10대 부산광역시의회 전반기를 이끄는 강무길 의장은 ‘중단 없는 부산 발전, 부산의 미래’를 의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내세웠다. 시민이 원하는 것은 말에 그치는 의회가 아니라 유능하게 일하고 책임 있게 성과를 만들어내는 의회라는 판단이다. 집행부에 대해서는 견제와 감시를 철저히 하면서 부산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는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겠다는 입장이다.

민생경제 회복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전통시장, 지역기업을 직접 찾아가는 ‘민생현장회의’를 활성화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요구가 조례와 예산, 정책으로 연결되는 ‘현장 중심 민생회의’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부산의 미래 성장동력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이전을 출발점으로 해양산업과 해운·물류기업, 해상법원, 가덕도신공항을 하나의 성장축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과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부산의 핵심 현안에도 의회 차원의 역할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후반기 교육위원장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도 드러냈다. 지역 간 교육 불균형과 학령인구 감소 문제를 부산 교육의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교육문제를 교육청만의 영역이 아닌 부산의 지속가능성과 도시 경쟁력을 좌우하는 미래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축설계 전문가이기도 한 의장은故 안상영 제32대 부산광역시장의 미래를 내다보며 부산의 주요 도시 인프라를 구축했던 것처럼 자신의 임기에도 “30년 뒤 부산의 미래를 떠받칠 수 있는 디딤돌 하나만큼은 반드시 놓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교육연합신문은 제10대 부산광역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만나 의정 운영 철학과 견제·협치, 민생경제, 해양수도 부산과 가덕도신공항, 동남권 광역발전과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교육의 미래와 임기 중 반드시 이루고 싶은 과제에 대해 들어봤다.

■ 제10대 부산광역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취임한 소감과 각오는?

“제10대 부산광역시의회가 개원하고 의장으로 일한 지도 어느덧 40여 일이 지났다. 그동안 원 구성과 특별위원회 발족을 비롯해 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시정질문 등을 통해 부산시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냈다.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만큼 두 어깨가 무겁다. 부산의 미래와 시민의 삶을 생각하다 보면 밤잠을 설치며 깊이 고민하는 날도 적지 않다. 지금 부산은 민생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시민의 삶을 지켜야 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의회 역시 여소야대라는 새로운 정치적 환경 속에서 협치와 견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산 발전은 멈추



서는 안 된다. ‘중단 없는 부산 발전, 부산의 미래’를 위해 시민만 바라보고 한결같이 뛰겠다.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부산의 현안을 하나하나 풀어 나가며 시민에게 성과로 보답하겠다.”

■ 향후 의회 운영의 핵심 철학과 여소야대 상황에서 견제·협치 방안은?

“제10대 부산광역시의회가 임기를 마쳤을 때 시민들로부터 ‘중단 없는 부산 발전을 이끌고 부산의 미래를 지켜낸 의회’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 우리나라 지방의회 역사가 어느덧 35년에 이르렀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한 축이자 풀뿌리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핵심 제도로 성장했다. 이제는 존재와 역할을 인정받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

시민이 원하는 것은 말에 그치는 의회가 아니다. 유능하게 일하고 책임 있게 성과를 만들어내는 의회다. 여소야대라는 정치적 구도 자체가 시민의 삶을 좌우해서도 안 된다. 시민에게 중요한 것은 어느 당이 다수이고 소수인가가 아니라 부산시와 시의회가 시민의 삶을 얼마나 나아지게 하고 부산 발전을 위해 얼마나 제대로 일하느냐다. 결국 목표는 같다. 민생을 안정시키고 부산을 발전시키는 일이다.

이를 위해 부산시의회와 부산시, 부산시교육청이 함께 운영했던 ‘정책협의회’를 확대·개편해 정례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양당 원내대표까지 참여해 주요 현안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가는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

다만 ‘화합해야 한다’는 당위에 발목 잡히지는 않겠다. 협력할 것은 과감하게 협력하되 잘못된 정책과 행정에는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겠다. 협치할 때는 확실하게 협치하고, 견제할 때는 제대로 견제하겠다. 시민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대변하는 ‘힘 있고 강한 의회’, 시민에게 ‘일 잘하는 의회’로 인정받도록 하겠다.”

■ 경기침체 속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시의회의 역할은?

“고물가가 일상화되면서 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골목상권을 지키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매우 크고 지역기업 역시 고환율과 경영비용 상승으로 힘들다는 절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의회가 현장으로 직접 들어가야 한다. 책상 위의 자료와 통계만으로는 민생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현장의 목소리가 시정의 중심이 되고 정책의 나침반이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지금 부산시의회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민생현장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지역기업 등을 직접 만나겠다.

지역 경제계와 함께하는 ‘경제 현안 정책토론회’도 지속적으로 개최해 기업인과 관계기관, 학계, 현장 전문가 등이 시급한 경제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찾도록 하겠다. 무엇보다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현장에서 나온 의견과 제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후속 조치를 점검해 실제 조례와 예산,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시민과 상인, 기업인이 ‘의회에 이야 기했더니 실제로 달라졌다’고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의회에서 제도로 만들고, 시민의 삶에서 성과를 확인하는 민생의회가 되겠다.”

■ 해양수산부 이전과 가덕도신공항 등 부산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방안은?

“해양수산부 이전을 통해 부산의 오랜 숙원이 현실이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지만 이제 겨우 첫 단추를 채운 것에 불과하다. 올해는 부산항 개항 1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다. 부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만도시를 넘어 해양산업과 물류, 금융, 사범 기능까지 집적된 명실상부한 ‘글로벌 해양허브도시’로 도약해야 한다. HMM의 핵심 기능이 실질적으로 부산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 견인하고 국내외 해운·물류기업의 추가 유치와 해상법원의 조속한 설치에도 힘을 모으겠다.

부산의 미래를 좌우할 또 하나의 핵심 과제는 가덕도신공항이다. 제대로 된 글

로벌 관문공항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2활주로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개항 시기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도권 기업이 부산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과 각종 인센티브 강화 등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해양·신공항발전특별위원회’가 부산의 미래 과제를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의회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해양수산부 이전을 출발점으로 해양산업과 해운기업, 해상법원, 가덕도신공항을 하나의 성장축으로 연결해 부산을 세계적인 글로벌 해양허브도시로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

■ 동남권 메가시티와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한 입장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산·울산·경남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다만 행정통합이 될 것인지, 특별연합 형태의 메가시티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기준은 어떤 방식이 부산의 미래와 시민의 삶에 가장 도움이 되느냐다.

통합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산업과 교통, 경제, 물류, 일자리 등을 실질적으로 연결해 부·울·경을 하나의 생활권이자 경제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우선돼야 한다.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과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도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다.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부산을 세계적인 해양·물류 중심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며,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부산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금융·산업 중심축으로 육성하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다.

부산은 해양·물류라는 기존의 강점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금융, 반도체, 바이오, 콘텐츠 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적극 키워야 한다. 가덕도신공항과 북항 재개발, 센텀2지구 등 핵심 인프라 조성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부산의 미래는 기다린다고 저절로 오지 않는다. 필요한 제도는 만들어내고, 필요한 기관과 기업은 유치하고, 필요한 인프라는 앞당겨 구축해야 한다. 부산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이자 세계적인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도록 부산광역시의회가 앞장서겠다.”

■ 교육위원장 경험을 바탕으로 본 부산 교육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교육의 토대 없이 도시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교육

은 단순히 학교 안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의 미래와 도시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분야다.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후반기 교육위원장을 지낸 만큼 지금도 교육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다.

부산 교육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역 간 교육 불균형’과 ‘학령인구 감소’를 꼽고 싶다. 지역에 따라 교육여건과 교육기회에 차이가 발생하면 주거와 인구 이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지역 간 격차를 확대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학령인구 감소 역시 단순히 학생 수가 줄어드는 교육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학교의 존립과 지역공동체 유지, 나아가 부산의 인구와 도시 경쟁력까지 연결되는 문제다. 교육정책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주거와 일자리, 돌봄, 교통, 지역경제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남고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부산시·부산시교육청·부산광역시의회가 함께하는 정책협의회를 통해 교육문제를 교육청만의 과제가 아닌 부산 전체의 미래전략이라는 관점에서 풀어나가겠다. 아이들이 사는 곳에 따라 교육의 기회가 달라지지 않고, 학생 수가 줄어드는 이유로 지역의 미래까지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육을 지키는 것이 곧 부산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 의장 임기 동안 반드시 이루고 싶은 일과 부산 시민·교육연합신문 독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故안상영 제32대 부산광역시장을 존경한다. 건축설계 분야를 전공하고 공직에 몸담았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동질감도 있지만 무엇보다 오늘날 부산을 대표하는 도시 인프라의 초석을 놓은 인물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도시 고속도로와 광안대교 등 지금은 부산의 일상과 상징이 된 주요 인프라는 당시 미래를 내다보는 과감한 결단과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었다.

전반기 의장 임기 2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 하지만 앞으로 30년, 그 이상의 부산 발전을 위한 디딤돌 하나만큼은 반드시 놓고 싶다.평생 건축설계 전문가로 살아왔다. 건축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일이 아니다. 사람과 그 사람의 삶을 공간에 담아내는 종합예술이다. 도시 역시 마찬가지다. 좋은 도시는 건물과 도로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이 행복해야 한다.

건축과 정치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한다. 건축이 사람의 삶을 더 좋은 공간에 담아내는 일이라면 정치는 시민의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이다. 당장 눈앞의 성과에만 매달리기보다 먼 훗날 시민들이 “그때 부산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만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부산은 지금 새로운 대도약의 문 앞에서 있다. 부산광역시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은 물론 부산 발전을 위해서 이끄는 견인차가 되겠다.

특히, 교육은 부산의 미래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토대다.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부산시와 교육청이 함께 풀어야 할 과제에도 의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교육가족을 비롯한 부산 시민이 “부산광역시의회를 믿어도 되겠다”고 말할 수 있도록 하겠다. 무엇보다 말보다 성과로 보여주겠다. 부산의 오늘을 지키고 더 큰 내일을 준비하는 ‘일 잘하는 의회’, 부산의 미래를 앞당기는 ‘힘 있는 의회’가 되겠다. 30년 뒤에도 부산의 미래를 떠받칠 수 있는 디딤돌을 놓겠다. 부산의 대도약을 위해 더 낮은 자세로 듣고, 더 부지런히 뛰겠다.”

황요규 기자 hog@